



咆哮하는 새해의 다짐

늠름하고 용맹한 백호처럼
모교·동창회 大業 이루자



〈사진제공 연합뉴스〉

관악출추

2010년 금년은 우리 동창회에는 대망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동창회의 숙원이었던 마포의 동창회관이 금년 말이면 준공을 보게 된다.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모교 교수와 후배들에게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이 장학빌딩은 우리 동문들의 크고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결정체다. 동창회가 생긴 이후 가장 큰 역사가 될 회관의 건립모금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창회 임직원들과 수많은 동창회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

우리 모교는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영국 최고의 신문인 The Times의 2009년도 대학평가에서 세계

47위를 기록한 것은 통쾌하고 자랑스런 일이다. 국제 학계에서 권위를 공인하는 SCI 논문기준으로는 24위다. 프랑스 명문 에콜데민 파리대학이 조사한 세계 500대 기업 CEO 배출 대학순위에서는 5위에 올랐다고 한다. 우리 서울대는 학문적으로나 매니지먼트 리더로서나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비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 모교가 국내 1위

모교를 아끼는 좋은 방법

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혁신과 헌신을 해온 찬란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이적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학내의 인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으

로써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입법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한다는 웅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보여온 저력과 실적을 볼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던 우리 서울대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국가의 영광이 걸린 문제다. 서울대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못하는 것이다.

지금 모교는 이 웅대한 과업을 위해 동문들의 기여를 호소하고 있다. 크든 작든, 십시일반으로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일조하는 것도 모교를 아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丘月煥논설위원)

신년사

모교 위해 아낌없이 봉사합시다

‘서울대다움’을 구현할 때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서울대학교 李長茂총장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밝아온 庚寅年 새해에는 우리 서울대 33만 동문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多事多難했던 己丑年을 보내고, 堅忍不拔이라는 말처럼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며 품었던 일들이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해는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큼 도약하면서 동창회가 국내외의 많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모교 지원에 큰 역할을 한 보람되고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문의 자발적 참여에 감사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가 세계의 대학들로부터 각종 찬사를 받는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 CEO 배출 순위 평가에서 5위에 랭크됐고, 영국의 The Times가 선정한 세계대학 순위에서 47위를 기록하며 20위권에 드는 단과대학도 많이 나오는 등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세계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특히 모교 李長茂총장님께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법인화의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마침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심의만 남은 것은 참으로 성공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교 구성원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서울대학교 법인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고, 우리 동문들은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작은 벽돌 하나 하나를 쌓아 올리는 참여와 격려의 마음으로 모교를 성심 성의껏 도우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학자인 마거릿 미드(Margaret Mead)는 “사려 깊고 헌신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지혜가 모여 대의를 위해 사용될 때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큰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귀한 가치가 더 큰 곳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교와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총동창회도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결코 짧지 않은 우리의 校史를 바로 찾아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난 1년여 간 철저한 연구와 진지한 난상토론을 거쳐 취합한 귀중한 자료들을 모아서 ‘正統과 正體性—서울대학교 開校 元年,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의 주요 대학의 개교 원년과 한국 근·현대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아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모교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으로 충분한 경쟁력과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너무 짧은 역사와 전통이 세계 명문대 10위권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되찾는 데에 동문들께서 그 뜻을 헤아려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애하는 서울대 가족 여러분!
본인은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수년 전부터 우리 동문들이 동창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서울대인이 더 이상 모래알이라는 것은 옛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한 국내외 최대의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은 주변 불법건물의 철거가 1년 가까이 지연됐으나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이면 완공하게 될 것이며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100년, 200년이 가도 건재할 자랑스러운 모교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내실 기할 터

장학빌딩 완공과 더불어 올해 총동창회가 추진할 각종 행사도 최선을 다해 전 동문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치르고 매월 1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동창회보도 여러분의 목소리와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기다려지고 읽고 싶은’ 품격있는 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훌륭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동창회 임원님들과 각계 동문들의 참여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조국과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는 서울대인이 됩시다!

올해는 호랑이의 해로 예로부터 호랑이는 義人을 돕는 존재로 지혜와 능률한 기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호랑이처럼 결코 물러섬이 없는 용맹함과 관대함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는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오신 林光洙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모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 전 세계에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세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사회경제적 분열과 양극화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대학 도약기반 다져

이렇듯 순탄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서울대학교는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곳곳이 매진해 왔습니다.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 교육 및 연구의 인프라 확충, 멀티 캠퍼스 조성 등의 노력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교는 학문적 자유와 여유가 넘치는 대학,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으며, 세계 유수 기관들도 이러한 발전상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열렬히 성원해 주시는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庚寅年 새해는 법인화 등으로 서울대학교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미래는 이 대전환을 계기로 해 우리 스스로가 ‘서울대다움’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민족의 대학’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첨단 과학기술과 선진문화가 동시에 꽃피울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견인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험을 보유한 대학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세계의 선진대학들을 모델로 삼아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모방을 넘어 독창적이면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정체성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의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이 되려면 교육과 연구 역량 모두에 있어서 세계의 대학들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연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발휘하려면 지금보다도 교육 부문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창의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 인본적 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학생은 ‘배우고 때맞추어 익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과 연구의 튼튼한 토대가 장만돼야 우리 손으로 세계적 석학들을 배출하고 인류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의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자유와 개방성이야말로 대학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 대학인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고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자유와 도전, 여유를 제도적, 재정적으로 견실히 뒷받침할 대학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는 이러한 ‘서울대다움’을 구현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법인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가 비단 경쟁력 제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성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불가결한 토대입니다. 이미 우리 학교는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동반자사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은 소외 지역과 계층에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입학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이러한 노력들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대다움’의 가장 중요한 표상입니다. 온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는 바로 이러한 ‘서울대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는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실천적 지혜의 전당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교육과 연구의 새롭고 보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동시에 세계인류를 위해 기여할 바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庚寅年 새해에 모교는 바로 그러한 대학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모교의 교직원과 학생 모두는 이러한 도전에 과감하고 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께서 이러한 도전에 나서는 모교에 대해 큰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광장

학벌이 좋아야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져야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국기의 李承晩대통령은 배재학당을 나와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4·19혁명 이후의 尹潽善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대 출신이다.

5·16군사정변 뒤 개발독재를 이끈 朴正熙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10·26 이후 잠시 과도정부를 이끈 崔圭夏대통령은 경기고와 도쿄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全斗煥대통령은 대구공고와 육군사관학교, 盧泰愚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문민정부를 연 金泳三대통령은 경남고와 서울대 출신이며,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金大中대통령은 목포상고, 뒤이은 盧武鉉대통령은 부산상고가 최종 학력이다. 현재의 李明博대통령은 동지상고 야간과 고려대를 졸업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다양한 학벌 속에도 격변의 한국 현대사가 함축돼 있다.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응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학벌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지도자들의 학벌 다양성은 줄어들 것이다. 정규교육 기회가 확대돼 잠재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과 출신 대학

李 容 式
문화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이 교육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학교에서 종합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 박사 출신이고,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도쿄대 공대를 거쳐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칭화대 공대 출신이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에든버러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10(낭테르)대 출신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출신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鄭夢準·鄭雲燦·金文洙·鄭東泳 등은 서울대, 丁世均은 고려대, 朴槿惠는 서강대, 李在五는 중앙대 출신이다. 박사학위자도 있고, 대학 총장 출신도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학벌 다양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균질화됐다. 한국사회가 발전했다는 의미도 되고, 다음 대통령은 모교를 포함해 정규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나온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조건과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관악시단

겨울 산책

黃 東 奎(영문57-61)모교 명예교수·시인

취퐁나무 울타리 밑에서 주워 든
얼어 죽은 참새의 별난 가벼움,
빈 뜰에서 싸락눈 맞고 있던
철없이 핀 장미의 전신 추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자의 살짝 들린 등부
를 내리누르던 바위 같은 얼굴의 어둠,
이들 때문에 하루를 흐리게 한 죄 없느냐 묻는다면,
물으시는 분과 함께 골목길을 오르겠습니다.
아파트 뒷문을 나와
물건만 잔뜩 문밖에 내논 쓸쓸한 가게들을 지나
힘없이 싸우고 있는 두 여자를 지나
즐기는 말쑥어도 늙은 호박 하나 늠름히 앉아 있던
지금은 비어 있는 슬래브 때문 지붕을 지나
시든 즐기 두셋 꽃고 있는 장미꽃 자리들을 지나
취퐁나무 울타리까지 가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마음 설레게 하는군요.
취퐁나무에는 주저하듯
까만 열매들이 영롱하게 달려 있었습니

동문칼럼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다. 백신은 마마로 알려진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박멸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소아마비를 거의 퇴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개발국에서는 수많은 어린 생명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만은 아니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10억명 이상의 개도국 주민들에게 기존의 백신은 너무 비싸다. 선진국 여행자들이 주로 쓰는 콜레라 백신의 경우 방글라데시에서 20달러에 달한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또 풍토성 질병이 발생하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많아서, 기존의 예방약과 치료약들은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는 선진국 여행자들이 주로 사용할 뿐이다. 제약회사들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렴한 개발도상국용 백신보다는 선진국 국민들을 위한 고가의 백신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안전한 물과 음식의 공급, 공중 위생시설 설비, 교육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위생 개선 등이 이러한 전염병들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의 최빈국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대책들은 단계적으로 충분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설사병, 수막염, 폐렴, 일본뇌염, 뎅기열 등의 질병에 대한 백신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IVI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그 본부는 서울대 연구공원 내에 두고 있다. IVI는 2004년 실험실 시설을 갖춘 지 불과 5년 내에 2종의 장

티푸스 백신과 1종의 저렴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 완료했다. 콜레라 백신은 1회 접종분당 1달러의 초저가로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VI는 백신의 임상시험, 전염병학 연구, 경제와 정책 분석을 포함한 현장 연구를 수행해 각국 정책결정자들이 자국에 새로운 백신들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사기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등 다른 질병의 감염위험 없이 누구나 손쉽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종법, 동일한 양의 백신 원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역보

강제 등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자선단체, 기업 및 개인 등 여러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IVI 본부건물과 연간 운영비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1억3천만달러 이상을 후원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더불어 IVI의 발전을 이끌었다. 과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인류를 위해 백신을 개발 보급하는 인도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플루(H1N1)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최근 백신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인류 위해 봉사하는 국제기구 IVI

백신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더구나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과거에는 개발이 어려웠던 백신의 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IVI의 백신 개발사업은 부국과 빈국의 보건 분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하고, 신종플루 등 전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된다. 또한 유치국인 대한민국의 생명공학과 백신산업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를 위한 백신개발 사업에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實,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범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올해는 庚寅年 범띠 해이자 60년만에 돌아온다는 ‘白虎의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분 벽화와 석관에 새겨진 四神圖를 보면 白虎는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四神 중 하나로 西宮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전해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초가 되면 궁궐과 일반 민가에서 권위와 위엄,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림을 그려 때문에 붙이면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金相廈(26년생·정치45-49)
삼양사 회장

대망의 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

한국에서 호랑이는 동물의 왕으로서 존경받고 있다. 그러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자들과 달리 개인플레이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서울대 졸업생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를 들곤 한다. 글로벌 월드에서는 한국에서 제일간다는 것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World Class University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로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면

호걸의 지혜와 기품으로 正道전자

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경제위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

다. 그 가운데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모교의 이름을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성원을 보냅니다.

저의 집무실 앞에는 ‘養氣不動眞豪傑 居心無物轉光明’이라

는 글귀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기운을 잘 길러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호걸이고, 마음 속에 욕심을 갖지 않아야 광명이다’라는 뜻입니다. 1975년 삼양그룹 사옥을 신축한 것을 기념해 서예가 如初 金應顯선생이 써주신 글입니다. 매사에 있어 正道를 지키라

는 中庸정신을 강조하는 글의 깊은 뜻이 좋아 마음 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새삼 여초 선생의 글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는 묵묵히 힘을 키워 한 단계 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흔히 빼어난 지혜와 능

려한 기품을 가진 백수의 왕으로 여초 선생이 말하는 호걸과 같은 동물이라 생각됩니다.

범띠 해를 맞아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께서도 호랑이처럼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면서도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正道를 걷는 사회의 동량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0년 한 해 모든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호랑이의 용의주도한 지혜와 용기로

가시적인 평가 순위도 중요하겠으나, 대학의 질적인 업적이나 졸업생들의 사회적인 기여내용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가 전혀 없이 큰 결집력으로 마포 로타리 근처에 마천루 버금가는 동창회 빌딩의 충고를 올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이 빌딩

은 앞으로 서울대 동문은 물론이고 우리와 교류하는 여러 대학 동문들에게까지 개방돼 실사구시를 상징하는 Academic Building으로 널리 사랑받고 또 베풀어주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대가 변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우수한 입학생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지식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새해에는 서울대가 우리나라 대학교육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수 있으면 한다. 발빠른 지구촌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과도 경쟁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은 그야말로 서울대의 훌륭한 인재 배출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는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호



李基俊(38년생·화학공학57-6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랑이의 용의주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李相禹(38년생·행정57-61)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대한민국도 60을 넘겼다. 그동안 한국민들은 갖은 악조건 속에

개혁작업에 참여하는 사명감 필요

서도 경제선진국 대열에 끼는 민주국가 건설을 이뤄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게 되면 제국 멸망사를 답습하게 된다. 그럴 줄 알면서 보고만 있어야겠는가?

급변하는 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확대억지’에만 의지하면서 안주할 수 있

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세력 균형체제’ 속에서 한국은 주체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원조로 살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질서 관리국의 하나가 됐으니 세계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무기체계로 전쟁양식도 크게 달라졌다.

현재의 연장 속에서 미래가 온다는 안이한 사고로는 시대에 앞서가는 전략기획을 세울 수 없다. 목표 상태를 정해 놓고 역시간적으로 현재의 과제를 찾는 안목을 가져야 바른 안보정책을 세울 수 있다. 주어진 교범과 체제에 묶여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온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공정책에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군사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방정책의 선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이다. 부족한 예산, 모자라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대에 앞서는 강군’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 작업에 헌신하려는 사명감이 있어야 국방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여성지위와 가족가치 재정립 기대

새해를 맞으며 새해의 각오를 다져본다.

2010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과 희망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국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에게

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여성정책이 시행돼야 할 시점이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2010년 새해에도 내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이슈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에 국격 제고와 함께 여성의 지위와 가족 가치의 재정립도 이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법안화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대와 모든 동문들에게도 기쁜 일이 많은 한



白喜英(50년생·식품영양69입)
여성부 장관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창조적 마인드로 새롭게 도전합시다

를 상징합니다. 그것도 상서로운 징조로 여기는 白虎의 해 2010년을 맞아, 변화와 위기 속에서 움츠리지 말고 더욱 도전적인 목표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호랑이의 패기로 도약하는 서울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학도 이제 국내외에 걸쳐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세계 속의 명문대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울대학교의 패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줄 때입니다.

‘지도를 거꾸로 본다’ 참으로 별 것 아닌 생각이지만 무심코라

도 세계전도를 거꾸로 본 기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 사람들 중에서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존의 낡아 버린 패러다임을 시대 조류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로 새롭게 도전한다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열정(passion)과 긍지(pride)를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과 변신

이 있을 때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잘 안된 부분에 얽매이기보다는 서울대학교 전체의 변화를 통해 조화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모두에게 충만해 庚寅年 2010년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李振洙(50년생·의학68-74)
국립암센터 원장

예로부터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자 산신으로 추앙되며, 강인함과 관대함을 함께 지녀 권위와 승리

☑ 호랑이는 하루 중 새벽 3시~5시를 가리키며 달은 양력 2월에 해당해 긴긴 겨울을 끝내고 새 봄을 맞이하는 시기로, 본격적으로 새 아침의 하루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또 호랑이 꿈을 꾸면 명예와 권세, 승리를 안겨다준다고 하지요. 2010년은 虎視牛行이라는 말처럼 황소같이 신중하되 호랑이와 같은 예리함과 판단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리면서, 범띠 동문 10명에게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범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劉獻俊(62년생·물리80-84)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까치가 내려앉은 소나무 옆으로 우스꽝스럽게 큰 얼굴을 들이민

올해는 그냥 호랑이띠 해가 아닌 60년만에 온다는 백 호랑이띠 해라고 한다.

호랑이는 영물이 아닌가. 어둠 속과 깊은 계곡을 홀로 다니며 독립성이 강하고 용맹한 동물의 왕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랑이띠들은 용감하고 배짱이 있단다. 또 관대하며 의리가 있고 신념이 강한 일관성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많다고 한다.

호랑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와도

국민의 마음 얻고 미래로 나아가

호랑이가 등장하는 ‘까치호랑이’ 그림은 언제 봐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정감 있는 우리 民畵다.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는 까치와 잡귀와 액운을 쫓아낸다는 호랑이가 묘하게도 다정해 보인다. 사나운 백수의 제왕이 아니라 웃음을 머금은 해학적인 호랑이가 참으로 정겹다.

그런데 국제화의 물결 속에 붓물처럼 밀려든 외국산 가치에 휘둘려 쫓대를 잃어버린 사이 우리의 일이 담긴 까치호랑이는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간 느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연 중에 새로운 것은 좋고 오래된 것은 나쁘다는 ‘등식’에 길들여지고, 전통

문화의 향기보다 외국산 커피 향에 끌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세계대학 순위 47위에 오른 서울대는 국제적 경쟁력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과 법인화라는 이슈에 흔들리면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의 모토는 퇴색돼가는 듯하다. ‘겨레의 대학’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출과 학문적 전통을 세워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서울대는 이제 백수의 제왕보다는 정겨운 까치호랑이의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해가 갈수록 연말연시 새해맞이가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선배분들과 동료에게 감사드리며 새해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햇불 같은 눈으로 세계를 보는 해로

깊은 관계가 있다. 종묘제례악에서 마지막을 알리는 ‘어’라는 호랑이 모양의 타악기가 있다.

2010년은 나의 해 호랑이띠 해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정열과 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

2009년 나는 安重根의사 의거 100주기를 맞아해 오페라 ‘대한민국 안중근’을 제작, 공연했다. 그

리고 이 공연은 安重根의사 순국 100주년으로 이어지는 2010년 주요 지방 공연장에서도 올려지게 된다.

이 공연 작품을 제작하는 지난 3년간 安重根의사의 위대한 정신은 나의 수많은 새벽을 깨워왔었다. 이 작품 창작을 통해 조국과 민족과 또 우리 역사와 그 속에

녹아든 우리의 위인들에 대한 예술적 승화시켜 한국 창작 공연 문화의 새로운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했다.

역사의식이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나는 우리 동문들에게 햇불과 같은 눈으로 安重根의사께서 가졌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비롯한 세계관을 바로 보자고 외치고 싶다.

이제 네 번째 되는 나의 호랑이띠 해를 또 한 번 새로운 새벽을



池光潤(62년생·작곡81-85)
오페라 ‘대한민국 안중근’ 총감독

맞이하는 각오로 호랑이처럼 힘과 열정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李丞胤(74년생·경영93-97)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새해 소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나의

내 열정·활력 타인에게 전달되기를

부모님, 동생, 그리고 나는 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자정 즈음에 모여 앉아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새해의 소망을 빌었다.

보신각의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새해를 축하하며 각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덕담과 격려를 주고받았다.

그 이후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새해 소망이라든가 계획에 무관심해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박사과정을 졸업할 즈음 지도교수님께서 주신 책의 제목이 ‘Composing a Life’이었다.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지가 삶의 만족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글을 동창회보에 기고하기 위해 차분하게 앉아서 새해의 희망과 목표를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나로서는 여간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해에는 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단조로운 일상에 지치고 감정이 무뎌지더라도, 나 자신에게 계속 동기부여시키고 열정적으로 삶에 몰입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는 교수님 한 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활력과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분은 학생들의 작은 의견 하나도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큰 흥미와 관심을 보이시고, 학생들을 동등한 연구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독려하셨다. 나의 열정과 활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심지 굳고 튼튼한 사람되길 바라며

나는 그저 좋은 엄마이자 따뜻한 아내이고 싶고, 회사에서는 믿을 수 있는 선배이고 싶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하고 싶다. 참 단순하고 소박한 소망이 아닐까? 하지만 요 사이엔 이 단순한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전 사회에 걸친 격변과 갈등은

내가 몸담은 작은 사회에도 예외 없이 밀어닥쳤고 그 격랑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때는 그저 ‘일 잘하는 후배’나 ‘맘 좋은 선배’라 생각하며 지내면 그만이었으나, 이제는 날마다 얼굴을 보고 지내는 이들 사이에도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배’와 ‘말걸 수 없는 후배’

로 나뉘어 서로 질시한다. 중간지대에 남는 것은 온건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돼 제 색깔을 분명히 하기를 매순간 요구받는다.

그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의 한바탕 포효와 함께 온갖 복잡한 심사를 떨치고 심지 굳고 튼튼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겠다. 온건하지 못하다면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숨 쉬기를, 나를



李秀妍(74년생·미학93-97)
KBS보도본부 1TV뉴스제작팀 기자

사랑하는 이들 곁에 항상 굳건히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尹敏智(86년생·의학03-09)
모교 병원 인턴과정

지나해보다 올해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

건강과 웃음 잃지 말고 행복하세요

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해인 범띠 해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은 이제 20대 중반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알찬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힘찬 내일을 향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들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0년은 저에게 하나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이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문들이 그러실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 작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신년의 설렘에 가슴 두근거립니다. 올해는 단 한 가지 소원이라도 정말 확실하게 이뤄지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평화나 인류공영 같은 거창

한 소원도 좋고, 금연이나 애인 만들기처럼 소박한 소원도 좋습니다. 물론 눈앞에 닥친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따뜻한 한 해가 돼서 내년에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학발딩 건립기금 연초부터 출연 줄이어

삼양통상 許南珪회장 3억원 쾌척



지난 12월 21일 삼양통상 許南珪(경제56-60)회장(사진)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쾌척, 향후 ‘許南珪특지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許회장은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발딩 건립사업에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금

을 출연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 졸업 후 1962년 시카고대 MBA를 취득한 許회장은 1963년 삼양통상에 입사해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삼양통상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이후 20년간 삼양통상 회장으로 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나이키 회장, 아시아태권도 연맹 회장 등을 역임한 許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선친의 호를 딴 보현장학회를 설립해 기금을 출연하며 후학 양성에도 크게 헌신해 왔다.

CJ그룹 孫京植회장 2억원 출연



지난 12월 31일 CJ그룹 孫京植(법학57-61 본회 부회장)회장(사진)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출연, ‘孫京植특지장학회’ 명의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977년부터 32년간 국내 우수기업의 CEO로 활약해온 孫회장은 1995년 CJ그룹 회장에 취임해 세

계적인 기업을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孫회장은 그동안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표준화, 중소기업 윤리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우리나라 기업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모교 발전기금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2025년까지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모금캠페인 ‘VISION2025’에 적극 동참해 각계 동문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CJ국제관을 기증해

卞柱仙회장 1억원 약정

지난 12월 4일 대림성모병원 卞柱仙(영여교육60-64 사범대학 동창회장)행정원장(사진)이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 1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5천만원을 보내왔다.

卞회장은 국제로타리 이사를 지낸 남편(金光泰씨)과 동문인 두 딸과 아들 가족의 공동명의로 ‘변주선 및 가족’ 특지장학회를 설립,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장학발딩·법인화·발전기금 논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2월 1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모교가 10여 년간 연구 검토해 마련한 법인화 법률안이 국회 심의만 남게 됐는데, 이 법이 제정돼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모교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학발딩 현황에 대해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100년, 200년이 가도 건재하고 모교 지원센터 역할을 하게 될 장학발딩은 불법 침범한 인접상가의 철거가 1년 가까이 지연됐으나 당초 예정대로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을 대신한 측사에서 金信福부총장은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 “국회로 이송된 법인화 원안이 일부 수정돼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구성원의 비판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在淳 명예회장은 건배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은 우리 민족의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지혜로써 낙관주의는 정신 사이클의 안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덕담했다.

사무총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모교 朱鍾南기획처장은 “모교가 법인화가 되더라도 기초학문을 지켜내고 저렴한 학비로 좋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는 변함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는 ‘VISION2025’의 성과보고를 통해 “부동산과 유산, 보험 등의 다양한 기부방식을 개발하고 출연자 예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개인기부 비중이 11%(2004년)에서 47%(2008년)로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하고 2010년 7월 말까지 계속되는 동문 집중 모금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林光洙회장·孫一根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관악회 임원, 모교 金信福부총장·金夏奭 특임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DC지부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워싱턴DC지부동창회(회장 尹璟儀)는 지난 12월 6일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韓惠洙주미 대사, 朴允洙·李英默·李典九 前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1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에서 지난 4년간 한글학교 운영에 1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정요셉(체육교육70-78 Golf Teaching Pro)동문을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이어 吳仁煥장학위원장이 박성우(재료공학95-03 동창회 웹마스터)·朴溫柔(성악97-01 모교 음대 강사)동문과 權鐵勳(약학72 입)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미국 한글학교협의회와 한미장학재단에 각각 1천달러를 기증하기로 했다.



뉴욕지부동창회

장학금·공로패 수여

뉴욕지부동창회(회장 韓京秀)는 지난 12월 4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李典九(입학60-64)미주동창회 명예회장, 孫奎星(체육교육61-65)이사장, 尹延玉(약학50-54)·金世中(토목공학50-57)·權泰典(사회교육58졸)·韓昌燮(정치57-62)·申應男(입학70-74)전임 회장, 李俊行(섬유공학48-54)골드클럽 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朴仁國(중문71-75)주유엔 대사의 측사에 이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黃昭仁(산업디자인96-01)·박무찬(건축96-03)·金炫燮(법학97-01)·정상훈(지구환경시스템공학04졸)·조원진(대학원03-05)동문에게 각각 2천5백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골든클럽 鄭澤洙(정치46-51)전임 회장에 본회 林光洙총동창회장 명의로 특별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동창회는 장학생을 포함해 15명의 동문에게 총 1만7천5백달러의 격려금을 수여했다.



춘천지부동창회

새해 장학사업 전개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12월 9일 강원도 춘천베어스관광호텔 소양홀에서 강원대 교수모임(회장 李漢敦)과 공동으로 2009년 송년회를 가졌다.

林正根회장 인사말에 이어 孫鶴圭(정치65-73)前민주당 대

표, 강원대 權英重(화학공학74-81)총장, 강원지방경찰청 宋岡鎬(법학76-81)청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 강원도당 邊知亮(정치78-83)정책위원장과 모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鄭泰洙(농업교육81-89)선임연구원에 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강원대 교수로 부임한 동문 11명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안동지부동창회

차기 임원진 선출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黃在文)는 지난 12월 15일 안동시내 금강산 가든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黃在文회장은 “지난 1년간 안동대를 중심으로 우의를 다질 수 있어 기뻐다”며 “새해에도 정기모임과 등산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에 안동대 식품생명공학과 鄭求民(식품공학72-76)교수를 선출했으며, 총무에 안동대 정보통신공학과 鄭海載(대학원85-87)교수를 선임했다. (表)

1·2 월
행사 캘린더

1월 19일(화) 오후 6시30분

• AIC동창회 신년회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문의 : 총무 010-9777-9000)

1월 20일(수) 오후 6시30분

• 법대동창회 신년회

서울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

(문의 : 735-3614)

1월 21일(목) 오후 6시30분

• 상대동창회 신년회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문의 : 761-2278)

1월 26일(화) 오후 6시30분

• ACAD동창회 신년회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문의 : 871-8951)

1월 26일(화) 오후 6시30분

• 정의과동창회 신년회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문의 : 885-4114)

2월 7일(일) 오전 9시30분

• 의대동창회 바둑대회

모교 연건캠퍼스 합춘회관

(문의 : 740-8183)

送舊迎新… 己丑年을 보내는 아쉬움으로



任廷基학장, 朴容晔회장, 嚴隆義동문부부, 李成春동문, 權俊壽동문부부, 康亨昱동문부부, 成相哲병원장

의과대학동창회

康亨昱동문 張起呂상 받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12월 15일 서울 소피텔엠 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함춘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姜信浩·李吉女 명예회장과 모교 朱槿源·權舜赫 명예교수, 任廷基학장, 成相哲병원장을 비롯해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함춘의학상 수상자에 모교 의대 嚴隆義(의학62-69)명예교수, 존스홉킨스 의대 金洸植(의학71졸)교수, 모교 정신과학교실 權俊壽(의학78-84)교수 등 3명을 선정해 상금 2천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또 제6회 ‘張起呂의도상’ 수상자로 국내의 소외계층을 위한 의

료봉사로 일생을 살아온 서울나우 병원 康亨昱(의학65졸)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함께 업적출판비 1천만원을 받았다.

朴容晔회장은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동창회 발전기금 1억7천만원을 달성하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내년 3월 정기총회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을 마친 뒤 동문들은 만찬과 함께 모교 재학생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관람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朴容晔회장이 경품 대상인 LCD TV를 협찬했다.

AMFRI동창회

宋明儀동문 경영대상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서초 로얄프라자에서 송년회 및 경영대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申一汕회장은 “지난해 많은 동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2010년 동창회를 이끌어갈 회장을 아직 선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하루 빨리 적임자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께서 AMFRI동창회를 각별하게 여겨 함께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저만 참석해 이 자리를 빌려 축사를 대신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이 모임에 나올 때마다 모교 전·현직 교수님들을 비롯해 전임 동창회장들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庚寅



申一汕회장, 宋明儀대표

年 새해에는 ‘虎眼牛步’의 자세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문과 동문업소 우수 직원에게 상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경영대상은 소나무식품 宋明儀(24기)대표에게 돌아갔다. 宋대표는 해외연수를 비롯해 동창회의 모든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본회에서 특별히 공로패를 제작해 李基浩(12기)사무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마로니에회

송년회서 장기자랑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鎔 단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 광화문 주점 텍사스에서 高惠玲 前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동국대 任敦姬명예교수 등 여성동문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許 瑄(정치64-

68)동문이 직접 작사한 마로니에 찬가를 노르웨이 민요에 얹어 불렀으며, 溫準淮(지질64-68 대광건설턴트 대표)동문이 하모니카로 가곡을 연주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 柳熙根(사회사업64-68 前전주MBC 사장)동문이 자신의 휘호를 직접 들고 나와 정신수양으로써 서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했다. 鄭회장은 이날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해 환호를 받았다. (南)

제12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www.snua.or.kr)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10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6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10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제7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7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a1969@naver.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2010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2월 중순

7. 시 상 식: 2월 정기총회

8. 문 의 : 02)886-2219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送舊迎新… 庚寅年을 맞는 설렘으로

부산지부동창회

정총서 宋圭政회장 재선임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宋圭政)는 지난 12월 7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宋圭政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지만, 동창회 창립 후 처음으로 회원 명

부를 발간해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뮈거敦(철학67-71)한국해양대 총장은 “서울대 동문들은 다 대학 동창회와는 달리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모임을 가지는 편인데, 앞으로는 애착을 가지고 동문 모임에 자랑스럽게 참여하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趙根皓(법학77-81)부산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고향에 와서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에서는 지역동창회가 활성화된 곳이 많지 않은데 부산지부가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대해 놀랍고, 서울대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공직에 있는 동문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宋圭政(사학63-67 윈스틸 회장)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曺圭香(법학60-64)동아대 총장·朴聖祚(정치55-59)석좌교수, 姜昌錫(역사교육66-71)동의대 총장, 夫龜旭(법학70-74)영산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心溪 金鍾璇 作



‘猛虎圖’, 한지에 厚彩기법, 75×60cm, 2009.

〈작가약력〉

- ▲74~80년 모교 회화과 졸업
- ▲80~81년 29회·30회 국전 특선 수상
- ▲81년 KBS 자선 초대전
- ▲82년 서울신문사 정예작가 초대전
- ▲83년 제2회 미술대전 특선 수상

- ▲85~87년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 ▲93~98년 갑인동인행전
- ▲00년 한·중 작가 초대전
- ▲05~07년 24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 ▲목우회 공모전 심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
- ▲전남대 겸임교수



공과대학동창회

골프대회 겸 총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許鎭奎)는 지난 11월 30일 경기 용인 은화삼CC에서 골프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30여 명의 동문이 출전한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건축동창회가 단체전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李柱石(전기공학72-76)동문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權五甲(금속공학68-75)동문, 3위는 李宗湖(토목공학59-65)동문이 차지했다.

메달리스트상은 崔重顯(건축73-81)동문에게 돌아갔다.

골프대회를 마친 뒤 만찬에서 許鎭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사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許鎭奎회장, 金貞植(전자공학48-56)·李達雨(전기공학48-53)·李富燮(화학공학56-60)·申春植(기계공학57-61)·趙炳祐(섬유공학59-64)·孔炳採(금속공학62-70)·尹鍾龍(전자공학62-66)·李潤雨(전자공학65-69)·張世昌(전기공학65-69)·申善浩(응용수학66-70)동문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관악무역인회

‘송년의 밤’ 행사 열어

관악무역인회(회장 柳東林)는 지난 11월 27일 서울 잠실선작장 ‘Secret Garden’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柳東林회장의 한국수입업협회장 출마 선포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본회 孔大植부회장, 관무회 金閔鍾·尹炳和·表相基·高光平전임 회장 등이 참석해 柳회장의 건승을 기원했다.

柳東林회장은 “반평생을 수입업 협회와 함께 해온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그냥 못 본 채 넘어갈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3천7백여 회원을 하나로 묶어 정제된 협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수입업협회장 선거는 오는 2월에 있을 예정이다.

보대원동창회

새 회장에 金旻永동문

보건대학원 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지난 12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金旻永(보대원72-74)원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감사는 한양대 산업의학교실 金閔信(보대원72-75)교수



와 분당 모교병원 尹寅熙(보대원79-82)사무국장이 계속 맡기로 했다.

올 한 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보대인으로는 朴大根(보대원63-65)前영동중앙의원 원장, 모교 李善子(간호61-65·보대원65-67)명예교수, 아시아가정의원 朴寶薰(보대원69-71)원장,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林國煥(수의69-73·보대원76-78)학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지난 4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오며 많은 발전을 이룩한 姜寅求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權五聖고문,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음대 59학번 동기회

50주년 기념 콘서트

지난 12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음악대학 콘서트홀. 늦은 일요일 오후임에도 통로까지 빼곡이 메운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음대 59학번 동기회(회장 權五聖)가 입학 50주년을 기념해 ‘Nostalgia Concert’를 개최한 것.

피아니스트 申秀貞(기악59-63)·劉和子(기악59-63)동문, 가야금 연주자 李在淑(국악59-63)동문, 첼리스트 玄敏子(기악59입)동문, 바이올리니스트 盧正淑(기악59-63)동문, 테너 朴成

源(국악59-65)·柳忠烈(성악59-65)·趙豐相(성악59-65)·崔熙雄(성악59-63)·黃哲(성악59-64)동문, 초대 가수 趙英男(성악64입)동문 등 유명 음악인들의 출연 소식에 제자, 선·후배를 비롯해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무대에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한 59학번 동기 40여 명도 동기들의 연주에 귀기울이며 50년 전 입학시절로 돌아갔다.

행사를 총괄한 趙豐相동문은 “음대 동기회 중에서 처음 연 ‘홈 커밍 콘서트’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다른 기수에 자극제가 돼 이런 행사가 모교에서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南)

2010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일 시: 2010년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①제12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2009년도 결산 및 2010년 사업계획 보고
③임원 개선 ④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4차·관악회 109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사범대학동창회

朴炳善동문 특별공로패 수상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한울무용단의 진도북춤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는 본회 鄭元植고문·孫一根상임부회장을 비롯해 禹寅燮·林香淳전임 회장, 卞柱仙회장, 金南祚시인, 인천광역시 安相洙시장, 李廷堤 前CBS 사장, 한국교총 李元熙회장 등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卞柱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국대 張忠植 명예총장께서 2010년부터 매년 4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며 전 동문의 숙원과제인 동창회관도 2010년도에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창회 소식을 전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대구 사범학교 출신인 朴正熙 前대통령



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을 뽑을 때 과격적으로 기수를 몇 계단 뛰어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임명된 분이 사범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범학교 출신들은 기본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朴 前대통령의 개인적

인 소신 때문이었다”는 비화를 소개하면서 “본회에서도 모범적인 동창회로 신뢰를 갖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직지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고

동승클럽

각계 동문 80명 한자리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12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처음 참석한 金顯石(물리 65-69)·閔忠基(수학65-74)·朴東根(화학65-73)·李根洙(사학 65-72)·張泳國(사회65-69)·洪鍾哲(외교65-69)동문을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초대가 수 이태원 씨의 공연과 년센스퀴즈 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宋泰鎬(사회65-72)동문은 “문리대 출신 시니어들이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끈끈하게 교류를 갖고 있는 모임은 동승클럽이 유일할 것 같다”며 “주요 일간신문에서도 특집으로 다룰만하다”고 말했다. 孫鶴圭(정치65-73)동문도 “동승클럽을 창립할 때 참석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정도로 발전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모래알로 유명한 문리대 동문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대단한 사건”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남 당진에 살면서도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李世瀛(언어65-73)동문에게 장거리개근상을 수여했으며 夫貞愛(사학65-70)동문이 와인을 무제한으로 협찬했다.

FIP동창회

咸光鮮회장 선출

미래정보기술융합과정동창회(회장 金明道)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金明道회장, 모교 공대 姜泰普학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알에스아이테크놀로지 咸光鮮(천문75-79·5기)대표를 선출했다.

이어 제4회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다산네트웍스 南閔佑(기계공학80-84·1기)대표, 산돌티움 申香淑(1기)대표, 픽스트리 申在燮(2기)대표, 현대기아자동차 李彥求(5기)부사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李鍾燮·南正明·洪承湧·朴龍安·趙正濟·孫鳳鎬·李昌馥동문

AMPP동창회

鄭鍾守회장 선임

해양정책 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는 지난 12월 9일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1백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총회에 앞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서 과정 개설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교 朴龍安(지질과학57-61)명예교수, 李昌馥(해양68-76)교수, 洪承湧(대학원83졸)前 해양수산부 차관 등에게 공로패를, 趙正濟(영문58-63)前해양수

산부 장관, 모교 郭秀一(상학59-63)명예교수, 安炳泰(경대원71-73)前해군참모총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南正明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해 모교 자연대에 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1분 발언대’에 나온 柳三男(1기)前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과정을 나오지 못했다면 장관도 못됐을 것”이라며 “최고 대학의 최고 과정에 들어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기념식 후 치러진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으로 KDA 鄭鍾守(2기)한국지사장을 선출했다.

의 금속활자본임을 입증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朴炳善(역사교육46-50)동문에게 특별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姜義植(체육교육53-57)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영어교육과동창회 高潤燮(영어교육65-72)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시간에는 柳子孝(불어교육68-75)동문의 새해 시 낭송, 高潤燮동문의 판소리, 李淑京(국어교육69-73)동문의 전통춤(영남교방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있었으며 이날 화학교육과동창회에 최다 참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AFB동창회

패션경영인상 시상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12월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회 패션경영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영인대상 수상자로 알랭미클르 李東洛(1기)대표, 케이벨 姜健一(2기)대표, 서울니트디자 인센터 윤근영(5기)대표, 링스G&C 백종수(7기)대표, 웰크론 이영규(7기)대표, 에코로바 조병근(8기)대표, 대원에프앤드씨 문정욱(9기)대표, 비티에스시 유희식(9기)대표를 선정해 시상했다.

송년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부회장으로 수고한 엘지패션 신수원프라자 崔博文(1기)대표, 상안월드 안대식(4기)회장, 일신산업 李啓文(경제70-77·5기)대표, 테크노에어포트를 양호석(8기)회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AFB동창회 회원 23명이 지난해 모교 발전기금에 2억6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崔炳五회장이 1억5천만원을 쾌척했다. <南>

“원로예술인 자체가 귀중한 문화적 자산”

동문을 찾아서

權 純 亨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대한민국예술원이 지난 12월 10일 제114차 임시총회에서 權純亨(응용미술49-55)동문을 제34대 회장으로, 黃秉冀(법학55-59)동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회장과 부회장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대한민국예술원을 대표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예술원에서 權회장을 만났다. 여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선 두툼한 손에 눈길이 갔다. 깊이 패인 주름과 흡사 흠색을 닮은 듯한 황토틀 손은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이 배인 ‘명품 손’이었다.

“선생님 손이, 아주 멋지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멍쩍은 표정으로 “작업을 오래 하다보니까”라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대 담 : 許文明논설위원(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 취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나름대로 영광이라고 할까,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예술원 회장이란 게, 크게 뭐 대단한 것은 없어요. 회원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보니... 다 되면 좋는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 회장이 됐으니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 회장님은 언제 회원이 되셨어요.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3세에 됐으니까 오랫동안 한 거죠.”

— 예술원 회장은 예술원 전체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되나요.

“그렇죠. 위에서 지명하는 게 아니고, 회원간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 선생님이 벌써 34대 회장이에요. 예술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술원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아니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곳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뒤따라오는 분들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니까요. 원로 예술인들 그 자체가 귀중한 문화적 자산 아닙니까. 사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없잖아요.”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 14명입니다. 예술가 관리와 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요. 회원 정수는 1백명인데 현재 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회원들 중에 최고 연장자는 올해 1백세 되시는 金聖泰선생이예요. 회원 중 80대 후반이 절반이 되고 그 이하가 반정도 되고요.

정기 행사로는 미술 분과에서 매년 전시하는 게 가장 커요. 다른 분과에서는 모여서 하기가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어요. 미술은 나이 들어서도 나름대로의 세계를 평가받을 수 있는 분야예요. 일생동안의 전성기라는 것은 항상 중년에 이뤄지지만, 말년에도 전공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고 조

각을 하고 도자기를 만들고 서예를 꾸준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일년에 한 번씩 전시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걸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회원들 대우는 어떤가요. 연금이 나가요.

“연금은 아니고, 회원이 되면 소위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1백30만원이 지급돼요.”

— 회원은 종신인가요.

“네. 하지만 중간에 체크는 해요.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사회에 무리를 주는 행동

해택을 받는 입장에서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감사하고 있지요.”

— 회장님이 선출된 이유,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원이 된 지 오래되서 예술원의 관계를 잘 알고 그러니까 한 번 좀 앞에 서서 해봐라,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지, 회장이 된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 매년 결원이 생기면 정원 1백명 안에서 보충을 하나요.

“예술원은 예술가 관리·진흥이 본분”

종신제로 운영되며 회원 87명 활동

• 權純亨회장은

강원도 강릉 태생으로 원로 도예인이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다. 한국 도예의 출발 및 발전사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權회장은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 1959년 미국 클리블랜드 예술연구소에서 1년간 유학을 가서 도자작업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60년 한국으로 돌아와 이후 30년간을 모교 교수로 봉직하며 미대 확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예술원 회원으로 뽑힌 뒤 미술분과 회장을 맡았다.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은 물론 공예

대전 심사·운영위원을 지냈으며, 서울시 문화상, 삼일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중앙청 대회의실 ‘무궁화의 승리’를 비롯해 국립극장 4층 ‘봉황문’, 국회의사당 후면 현관 ‘한글문’, 위귀할호텔 로비 ‘금수강산’과 지하의 ‘벽화본’ 등 수많은 작품이 있다.

지난 2009년엔 權회장이 도예에 발을 디딘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디자인 운동의 실질적인 발상과 실천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공예가일 뿐 아니라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대학의 도예 및 디자인 교육에 이바지한 교육자이다.

“그렇죠.”

— 예술원이면 원장이란 호칭이 어울리지 않아요.

“원장이라고 하면, 소위 기관의 장이 되잖아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예술

원 회원들의 회장이다’ 해서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 예술이란 게 정치하고 별개인데 그동안 정치 바람을 탄 적은 없었죠.

“정부가 순수한 의미에서 지원하는 곳이고, 정치 바람이 표현되면 벌써 예술가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 살아오신 이야기를 여쭙 볼게요. 어떻게 도예를 하시게 된 거예요.

“묘하게 된 건데, 1959년에 미국에서 1년간 유학 기회를 얻었어요. 미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공예시범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미국무성 산하의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ministration) 원조를 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1년간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담이지만, 비행기도 노스웨스트 쌍발 비행기 1등석을 탔어요. 미국에서 원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해 준거죠. 비행기 기내식에서 양식이 나왔는데 내 경우는 다행인 게 학교 다닐 때 張 勳학장이 응용미술과, 디자인 쪽의 학생들을 조선호텔에 데려가서 양식 먹는 방법을 실습차원에서 가르쳐 줬어요. 스푼, 포크, 나이프 놓는 순서, 뭐를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먹고, 그 다음에 끊는 것은 어떻게 끊는다는 것을 학장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요. 덕분에 1등석에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먹을 수 있었어요. (웃음)”

— 문득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워싱턴에 도착해 한 달간은 미국 생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9월에 클리블랜드 예술연구소에 가서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프로젝트 디자인, 커머셜 디자인, 에드버타이징 디자인, 그 다음에 세라믹을 배웠어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셰어라는 이름을 가진 내 후원자가 ‘여기서 배울 것을 모두 배워 한국으로 돌아와서 후대를 키우라’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내 대신에 수강신청을 다 해줬어요. 당시에 나도 열정이 강해서 전공을 두 개나 선택했어요. 그런 사람은 나 밖에 없었죠. 낮에는 기본 디자인을 배우고 저녁에는 도자를 배우고. 당시 서른 살이었는데 스무 살 학생들과 묻혀서 뒹굴었죠. 1년간 공부해서 성적을 좋게 받았어요. 남이 한 점하면 나는 두 점, 세 점을 냈어요.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여기 코리아에서 온 미스터 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뭐하냐’며 야단도 치고 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모교 미술대학으로 와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 그러니까 도예는 미국에서 처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돌아와서 가르치는데, 가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이전에 졸업반 아이들을 데려가서 ‘흙 좀 만져보라’며 시골 초가집에서 작업을 시작했죠.”

— 원래 도자 전공도 아니셨는데, 도자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끌리셨나요.

“당시 내가 공부했던 60년대



도예를 장식예술의 경지로 이끈 선구자

☑ 미국에서는 도자 분야가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서양에는 원래 없는 것인데, 동양의 어떤 흐름이 건너오면서 대학원에서 코스를 막 만드는 시점이었고, 그때가 한창 도자가 뜨는 시기였어요. 나는 내심 청자, 백자가 있는 한국이야말로 도자의 원조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공리를 하게 된 거죠.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처음에 작품을 보더니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도자기냐’ 하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남이 뭐라 하긴 눈치 안보고 밀고 나갔죠. 그랬더니 나중엔 ‘색을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냐’며 백자 청자만 보다 색이 들어가니까 전부 호감을 갖고 받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도 길러냈죠. 그때 제자들이 지금은 다 환갑을 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졸업생들의 말년도 상당히 보람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도자라는 게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과 유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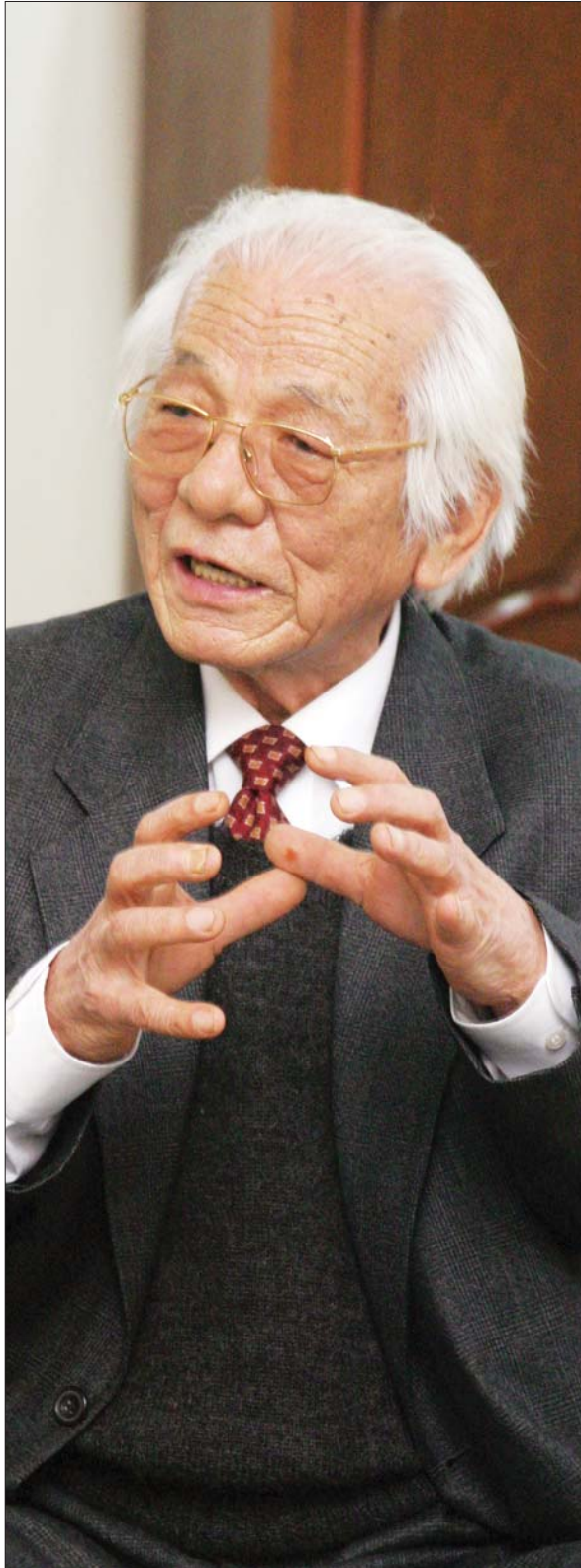
“유약을 불로 조절하는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색을 조절해 농도가 침침한 것을 원하면 그것으로 가고 밝은 쪽으로 가려면 밝은 쪽으로 가고,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 선생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철학이라고 할까, 도자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다거나 배웠다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도예작업은 상당한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합니다. 불을 잘못 때면 몽팡 없어지고, 반복해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묘한 감정이 곁들여진 작품이 나오거든요. 끊임없는 반복, 반복입니다. 제가 국내에서만 18번 개인전을 했어요. 초대전 혹은 순회전을 통해 미국, 캐나다에서 전시한 적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다시 반복해서 나올 수 없는 작품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강북에 살 때 두 번 이사하고 강남으로 와 세 번 이사하고 지금 시골로 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 예술가의 길이 보통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하긴 했죠.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사범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상하게 미술에 끌리는 게 있었어요. 또 항상 미술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았어요. ‘저 권순형처럼 해라’ 그런 소리도 듣고, 내가 이쪽으로 감각이 있나 보다 해서 밀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에 오게 된거죠. 그동안 애로점은 있었지만, 안 될 때는 섭리로 이해하고 그런 거라 여기고, 또 하다보면 뭐가 생기고 아껴주고 하니까….”



— 미술은 아무래도 재능이 있어야 하죠.

“재능이 있어야죠. 재능 없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고. 하지만 재능과 더불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노력이 수반돼야 결실을 맺을 수 있죠.”

— 회장님 작품은 도자에 아름다운 색깔을 지유자재로 넣어서 마치 풍경화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산수도 있고 우주의 변화, 산 속 또는 잎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 물 속에서

금은 일반화됐지만 고층건물의 로비나 회의실, 야외공간이나 공원 등에 도자 벽화를 처음 시도한 것도 權회장이다. 도예의 영역을 산업적으로 확장한 선구자인 셈이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미술공예=도안’ 혹은 ‘도자공예=청자재현’이라는 인식이 지속되던 시기에 그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현대공예가 뿌리내리도록 큰 역할을 했다.

—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젊은이들의 감각이 섬세한 것도 있고 러프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소위 인간성,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해 낯다리 같이 가는 파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위험스러운 감이 들어요. 개인은 기분 좋아서 할지 모르지만, 남이 볼 때는 염려

“부모 반대 무릅쓰고 미술에 심취”

59년 미국서 도자분야 처음 접해

요동치는 것이라든지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도자의 색깔이라는 것은 불로 굽기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 이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도자가 불에 들어가 열을 받아 재발색을 하면, 그것은 다년간의 체험을 통해 습도는 이 정도로 맞추고 열은 이렇게 하면 이런 색이 나오겠구나 하는 건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權회장의 작품은 항아리, 병 등에서 탈피해 도예를 장식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

되는 면이 있어요. 너무 가볍고 그런 쪽으로만 가사…: 모든 것이 기계화되는 요즘 역으로 생활에서는 차별하면서 정서적인 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서울대 선배님이자 명예교수로서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 분야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동창회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의무만 하는 정도죠. 동창회에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우리 서울대처럼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기적적으로, 노력의 대가가 그렇게 현저하게 나타날 줄 몰랐죠. 그런 면에서 동창회에서 일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역시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즐겁게 동창회 보도 보고 있습니다.”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발전과 예술가 지위 향상을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1952년 문화보호법에 의해 설치돼 1954년 7월 17일 개원했다. 개원 당시 정회원은 25명이었고, 초대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高藏東(1886년 3월 11일~1965년 10월 22일)이었다.

1988년 12월에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대체하게 됐으며, 1989년 첫 번째 개정을 한 뒤 1996년 세 번째 개정을 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정원은 1백명으로 규정돼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87명이다. 회원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어야 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의 4개 분과로 나뉘지며 각 분과마다 회장이 선출된다. 총회는 재적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 회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으로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등을 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87명의 회원 가운데 41명이 동문이다.

△문학 분야: 洪允淑(교육46입)·金南祚(국어교육47-51)·朴婉緒(국문50입)·成贊慶(영문50-57)·韓末淑(언어50-55)·李御寧(국문52-56)·崔一男(국문52-57)·柳宗鎬(영문57졸)·金后蘭(가정교육53입)·金允植(국어교육55-59)·金禹昌(영문58졸)·黃東奎(영문57-

61)·徐廷仁(영문62졸)동문.

△미술 분야: 朴魯壽(회화46-52)·白文基(조소46-50)·徐世鈺(회화46-50)·權寧禹(회화46-51)·李光魯(건축47-51)·趙守鎬(회화47입)·權純亨(응용미술49-55)·文學晉(회화49-52)·田礪鎭(응용미술49입)·李信子(응용미술50-55)·閔庚甲(회화53-57)·崔鍾泰(조소54-58)·尹明老(회화56-60)·李鍾祥(회화59-63)·柳熙永(회화58-62)동문.

△음악 분야: 李惠求(문학26-31)·鄭回甲(작곡46-51)·安亨一(성악47-53)·黃英金(성악49입)·李慶鎭(성악50-55)·黃秉冀(법학55-59)·徐桂淑(기악56-60)·李在叔(국악59-63)·權五聖(국악59-63)·申秀貞(기악59-63)·韓明熙(국악64졸)동문.

△연극·영화·무용 분야: 金正鉦(불문51-56)·宋壽男(체육교육54-58)동문.

‘부천 필’과 함께해온 지휘자 인생 20년

2009년 12월, 모교 관악캠퍼스 국제대 학원 뒤편에 위치한 음악대학 예술관 건물을 찾았다. 방학이어서 그런지 사방이 조용했다. 3층 교수연구실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드니 309호 林憲政(작곡70-76)교수 연구실이 눈에 들어온다.

국내 최고의 연주실력을 자랑하는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에서 1989년부터 20년간 최장수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약해온 林憲政교수. 현재까지 국내에서 20년 이상 한 오케스트라를 맡은 지휘자는 林교수가 유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교 재학시절 그는 국내 처음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고, 1974년 작곡 부문에서 처음으로 제14회 동아콩쿠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초로 ‘말러 전곡’ 4년간 연주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면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말러 교향곡 전곡을 완주한 지휘자’로서 지난 1999년부터 4년동안 ‘말러 신드롬’을 일으키며 청중이 제 발로(?) 음악홀에 오도록 만들었다.

“왜 말러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고, 단원들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연주를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으려 올까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못하죠. 그걸 깼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것은, 어려운 음악일 지라도 연주가 좋으면 사람들은 분명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임했고, 관객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리에 공감하며 역사에 남을만한 연주를 해냈다고 생각해요.”

林교수가 이끈 부천필의 뛰어난 연주실

력은 초창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되던 1990년, 부천필은 교향악축제에 출연해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을 완벽히 소화해냈다.

“20년간 부천필을 떠나지 못한 것은 제 음악인생을 바친 곳이기도 하지만, 연주를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웃음). 처음 부천필을 맡아달라고 의뢰 받았을 때 ‘무조건 하자. 젊은 사람이 무엇을 재고 있어. 잘 만들면 되지’라는 패기와 열정 하나로 단원들과 푹푹 뭉쳤습니다. 그러던 중 교향악 축제에 한 번 출연해보라고 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지금까지 그 명성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단원들과 이처럼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서로간에 부딪치는 일은 없었을까. 20년간 변함없는 하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했다. 특별한 기술도, 뛰어난 리더십이나 언변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악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강압적이어서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뚫어져라 악보를 쳐다보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관련 책을 보며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구상해봅니다. 그렇게 집대성한 것을 연습실로 들고 가서 단원들에게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거죠. 제가 열심히 준비해오지 않으면, 단원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동받을 정도로 좋은 연주를 하면 듣는 사람도 감동받을 것이라고 늘 얘기하죠.”

언제까지 부천필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林憲政교수는 2009년 초에 단원들에게 선언한 것이 있단다. 부천에 좋은 음악홀이 완공되면 지휘자의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명예롭게 퇴임한 지휘자



가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을 지켜본 林교수는 자신이 먼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원래 계획은 올해 부천음악홀이 완공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100년, 200년 가는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점에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잘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예요.”

“부천홀 완공되면 명예롭게 퇴임”

이런 바쁜 와중에도 林교수는 모교에서 음대 작곡과 지휘전공 주임교수로 제2의 ‘마에스트로 임헌정’을 꿈꾸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터뷰하러 간 날에도 학생들은 그의 방에 놓인 피아노를 치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林교수는 1년 내 자신의 연구실은 학생들의 연습실이나 다름없다며 방학에도 늘 이렇게 시끌벅적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치른 기말고사 때 지휘과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봤는지 궁금했다.

“당연히 지휘를 보죠. 곡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인 공부는 필수고, 한 친구가

옆에서 어떤 곡을 피아노로 치면 다른 학생은 머리 속에 악기들을 배열해 여기선 어떤 악기가 소리를 내고, 언제 다 같이 연주해야 하는지 전체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봅니다.”

단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을 주문한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보라고 권해요. 새로운 세계를 도전적으로 찾아 나서는 예술가의 삶에는 끝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야말로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음악가는 새

로운 감각, 새로운 소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같은 걸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음악도 어떻게 하면 새롭고 좀 더 맛있게 내놓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나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선생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음악엔 정답이 따로 없어요. 열심히 연구해서 스스로 깨우친 학생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학생에게 처음부터 답을 가르쳐준다면 진정한 선생이 아니죠.”

우리나라 교향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최고의 지휘자이자 뚜렷한 음악관으로 단원과 학생들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온 林憲政교수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부천홀이 완공될 때까지 열심히 지휘하고, 재능 있는 후배들을 발굴하는 데 매진해야죠.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거구요.”

약속한 시간이 다되자 林憲政교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한 뒤 경쾌한 걸음걸이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옆방으로 향했다. <表>

화 성 산 업 (주)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KBS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서울 강북구 번동의 ‘북서울 꿈의 숲’은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북서울 꿈의 숲’을 설계한 화성산업(주)(대표 李弘中 토목공학 67-71)은 ‘쾌적한 환경 창조,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작은 부분에서도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기업이다.

대구·경북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한 李 대표는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건설주역으로 발전된 사회를 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북서울 꿈의 숲’ 설계

1958년에 설립된 화성산업은 고건축 복원공사를 비롯해 은행, 학교, 문화센터, 복합 아파트 등 기능과 미관이 중요한 각종 건축물의 까다로운 공사를 완수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토목부문에서는 신전대로, 앞산순환도로, 지하철 1·2호선 등 대구지역의 주요 도로 공사를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도시철도 4개 공구에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화성산업은 우리나라 도시 곳곳에 각종 랜드마크를 건설해 전통 건축물에서 첨단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국토 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업적

을 남겼다. 호남지역의 상징적 건축물인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경 전문가 1백52명이 ‘한국 최고의 현대우수조경’ 10대 작품으로 선정한 서울월드컵 평화의 공원 등을 건설했다. 특히 대구의 명소인 전시컨벤션



李弘中대표

도시계획, 건축감리, 건축설계, 도로교통 등 엔지니어링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월드컵 4개 경기장과 평양실내체육관 건립에 참여한 PC사업 분야는 새로운 공법으로 경

제성과 안정성을 창출해 최상의 품질을



화성산업이 설계한 서울 강북구 번동의 ‘북서울 꿈의 숲’

쾌적한 환경·살기 좋은 도시 창조기업

장학문화재단 통해 학술·복지사업 추진

터(EXCO)를 준공해 대통령상과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작품상을 수상했다. 화성산업은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제공했다. 정부의 녹색산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산업은 언론사

와 공동으로 ‘늘푸름 환경대상’을 제정하고 해마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또 해외기술 도입과 자체 연구사업으로 기후변화 협약기구로부터 탄소배출권 발행을 공식 승인받아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며 녹색성장을 이루고 있다.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주택시장부문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新주거문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화성산업의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화성의 디자인 기술이 국내 정상급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 상인동 화성파크드림의 폰타나 광장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도권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 6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산업은 지난 1993년 화성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각종 학술·문화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 임직원들도 봉사단을 구성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누고 있다.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소중히 생각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반세기를 넘어 100년을 향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 화성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榮)

제2회 발전공로상 수여

金貞植·尹世榮·洪性大동문·SK 수상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12월 10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제2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朱鍾南기획처장의 선정경위 보고, 발전기금 南益鉉 상임이사의 수상자 및 수상단체 소개, 선정증서 및 기념패 증정, 수상 소감, 축하, 축하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모교는 이날 대덕전자 金貞植(전자공학48-56)회장, SBS 尹世榮(행정56-61)회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수학57-63 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에게 발전공로상을 시상했으며, 단체부문은 SK(주) 崔泰源회장을 대신해 崔庠薰(화학공학71-75)경영관리 총괄 사장이 대리 수상했다.

모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대학과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단체)의 귀한 뜻을 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제정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金貞植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예전에 기증한 제1·2공학 도서관을 들릴 때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늘 흐뭇했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



林光洙회장, 洪性大·金貞植·尹世榮·崔庠薰동문, 李長茂총장

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있는대로 돕겠다”고 말했다.

尹世榮회장은 “반세기 이상 우정을 함께 한 법과대학 동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줘 기쁘다”며 “이 상은 모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당부와 격려로 알고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洪性大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모교에서 10여 년 전의 수리

과학관 건립·기증이라는 조그마한 묵은 정 표시 하나를 잊지 않고 분에 넘치는 상으로 크게 칭찬해 주셔서 감개무량하다”며 “모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키워지고 서울대인의 힘이 한데 모아진다면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李長茂총장은 축하에서 “오늘 수상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모

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셔서 모교는 괄목할만한 국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인화 법이 제정돼 모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총동창회도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장학발달이 내년 말에 완공되면 입대수입금 전액은 모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孫-根상임부회장, 禹仁性·鄭八道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본회에서 발행한 단행본 ‘正統과 正體性 - 서울대학교 開校 元年,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를 배포했다.



북경대 리 안송 부총장, 모교 李長茂총장, 동경대 주니치 하마다 총장, 하노이대 트롱 누안 마이 총장

베세토하 총장포럼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 논의

모교는 지난 12월 3일부터 3일간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향하여’를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 4개 대학 포럼인 제10회 베세토하(BESETOHA)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장단 회의를 통해 고령화되는 아시아의 사회 비전과 대학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李長茂총장은 포럼 발표문에서 “2050년에는 베세토하 네 나라의 50세 인구가 20%를 넘게된다”며 아시아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것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인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경대는 이미 심각한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4월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에 노년학(gerontology)을 개설했다. 동경대는 노인인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에 적합한 지역사회구조 개발을 연구 중이다.

북경대의 저우치펑 총장을 대신해 리 안송 부총장은 “중국은 넘쳐난 살림을 꾸리기 전에 너무 일

찍 사회가 고령화돼 문제가 심각하다”며 “서구식의 사회적 부양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가 지켜온 효의 가치를 지키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노이대는 베트남 인구의 10% 이상이 초등교육도 못 받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 ‘노화인구’가 된다고 밝혔다. 하노이대는 앞으로 대학이 앞장서 ‘학습형 사회’를 만들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모교는 이번 포럼에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의학연구, 활동적인 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고령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변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모교는 지난 2006년부터 본부 직할로 노화고령화사회연구소(소장 朴相哲)를 설치하고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베세토하(BESETOHA)는 동아시아 주요 4개 대학인 북경대(BEijing), 서울대(SEoul), 동경대(TOKyo), 하노이대(HANoi)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모임으로 2000년 처음 결성됐다.

인문대학

‘지역문화학부’ 추진

인문대학(학장 邊昌九)은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역문화학부’(가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안에 따르면 올해 입학하는 인문계열 학생 3백명 가운데 2학년 전공을 선택하는 2011년부터 지역문화학부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문화학부 내에는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등 5개 지역의 전공을 두고 교수 절반 이상을 해외 학자로 채울 계획이다.

邊昌九학장은 “지금까지는 유독 강대국 일변도의 인문학 연구가 이뤄져 구명난 지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문명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역 연구를 위해 이 같은 학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인문대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완성한 뒤 학장회의와 평

미술관

張旭鎭화백 작품전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거장인 張旭鎭(1917-1990)화백의 작품을 전시한다.

張화백의 20주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작품전은 유화 90여 점과 먹그림, 스케치, 사진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2001년 10주기 기념회고전 이후 張화백 전시로 써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전시는 張화백의 활동 시기별로 나눠 △모색기 △추상으로의 여정 △전통과 더불어 △고독-바람이 되어 △도인과 민화 등 5개 주제로 구분해 각 시대에 따른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張화백은 1954년부터 6년간 모교 교수로 활동했으며 金煥基,



(1990년 작)

張旭鎭화백의 ‘밤과 노인’

劉永國 등과 함께 신사실과 동인으로 활약했다. 동년배 화가들이 대형 추상화를 그릴 때 독자적으로 동화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504〉

미술대학

졸업전시회 열어

미술대학(학장 章洙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과 미술대학에서 ‘2009학년도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사 1백22명, 석·박사 34명의 학생들이 조각 및 회화 작품을 출품했다.

디자인학부 공예과는 졸업전시 기간에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바자회를 열어 작품을 판매했다.

졸업전시회는 미술대학 졸업대상자와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실력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榮〉

학생지도·교육역량 강화 위해

1학기부터 ‘교과과정 평가’ 실시

모교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학기부터 모든 학과와 학부에 대해 ‘교과과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무처(처장 金明煥)는 교수와 전문위원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교수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개별 학과와 학부는 최소 4년에 한번씩은 교과과정 편성과 내용의 충실성, 성적

평가의 공정성 등을 평가받게 된다.

모교는 우수 교육단위의 경우 예산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교육단위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 단과대와 학과의 학사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교직원이나 학과 교수들이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기금
동문모금

4개월간 3억3천만원 약정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작한 동문 집중 모금캠페인을 통해 1백 25명의 동문이 총 3억3천8백여만원(12월 14일 기준)을 약정했다고 밝혔다.

〈연령별 약정율 및 약정액 비교〉

	대상인원	약정인원	약정률	총약정액(원)	평균약정액(원)
20대	261	1	0.40%	100,000	100,000
30대	902	9	1.00%	1,090,000	121,000
40대	1,474	11	0.70%	4,920,000	447,000
50대	1,769	24	1.40%	89,500,000	3,729,000
60대	1,798	24	1.30%	19,210,000	800,000
70대	1,464	37	2.50%	165,055,000	4,461,000
80대	279	17	6.10%	57,870,000	3,404,000
90대	14	0	0.00%	0	0
미확인	211	2	0.90%	300,000	150,000
계	8,172	125	1.50%	338,045,000	2,704,000

50억 이상 출연자에게 거주형 캠퍼스 헌정합니다

모교 발전기금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 ‘VISION20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에 50억 이상을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7월 완공 예정인 신축형 기숙사 7개동에 각각 기부자 명의로 기숙사 1개동을 명명해 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헌정대상 : 2010년 6월까지 ‘핵심 모금 사업’ 50억원 이상 출연자
- ◆헌정내용 : 기부자의 아호 또는 희망명칭으로 기숙사 1개동에 명명(ex. 〇〇〇홀)
 - 해당 동 1층 로비에 기부자 부조와 공적 기록물 설치
 - 2010년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헌정식 거행
- ◆관련문의 : 02)871-1620
- ※ 본 헌정 캠페인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공과대학

여름에 청소년 과학캠프 예정



姜泰晋학장·鄭潤이사장

공과대학(학장 姜泰晋)은 한국 과학창의재단(이사장 鄭潤 자원 공학76-80)과 함께 올 여름에 제 5회 국제청소년과학캠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연구와 국제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청소년과학캠프(International Youth Science & Engineering Camp, ISEC)는 2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실험·연구활동 중심의 국제 과학캠프로, 2002년 한·미 캠프의 성공적 개최

를 시작으로 계속 확장돼 왔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독일·인도·일본·싱가포르·중국 등 10개국 이상에서 과학기술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대학 연구실에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산업계 견학, 문화체험 등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캠프에서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 에너지, 질병, 식량, 물 부족과 같이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한국 참가자 선발은 3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행사 홈페이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榮)

재학생의 소리



참된 교육 실천하는 밑거름 될래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자원교사대표를 맡고 있는 康永振입니다. 88년생,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영명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거쳐 모교에 입학했습니다. 제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범대를 가려던 중 운이 좋게도 모교의 과학교육계열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열린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 중이던 선배가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열린지역아동센터’는 관악주민연대를 모단체로 한 곳으로 자원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는 세 가지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산아파트 3단지(임대아파트)아이들을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원교사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들과 부딪히며 살아



康 永 振
(화학교육07입)
열린지역아동센터 교사대표

가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원교사들은 각각 자기 나름의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교사대표 임기동안에 위의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다른 교사 분들과 함께 후배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고, 그런 깨달음이 제가 교사가 됐을 때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교에서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해서 교직으로 나갔을 때 더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제25대 총장 초빙 공고

서울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걸맞게 교육 및 연구 활동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점에 서울대학교를 세계의 대학으로 이끌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초빙대상

- 사회가 서울대학교의 총장에게 기대하는 인품과 학식, 사회적 지도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병역 또는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직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으며,
- 취임예정일(2010. 7. 20) 기준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65세 정년까지 가급적 3년 이상 총장 재직이 가능한 분 (학외인사 또는 외국인도 가능)

■ 제출서류

- 본인 응모의 경우
 - 지원서(인적사항, 학력, 경력, 업적 포함(소정 서식) 1부,
 - 서울대학교 운영에 대한 소견서(자유 서식, 2쪽 이내) 1부,
- 추천의 경우
 - 추천서(소정 서식) 1부(추천된 인사의 소견서는 필요시 추후 요구)
 - ※ 추천인
 - 서울대학교 동문, 명예교수나 총장후보 선정 투표권이 있는 학내 구성원 중에서 5인
 - 서울대학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위원

■ 접수방법 및 접수마감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추천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마감 : 2010년 2월 10일 (수) 17:00까지

■ 접수처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번지
서울대학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사무국(행정관 2층)

■ 초빙방법

- 추천을 받거나 응모한 인사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정 범위(3~4인)로 압축하여 총장후보대상자를 지명
- 위 피지명자를 대상으로 총장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 대학 구성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정된 총장후보 2인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추천

■ 기타

- 소정 서식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nu.ac.kr)의 “공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인은 공개하지 아니함.
- 문의처 : ☎ 02-880-9721, (FAX) 02-885-5272, (이메일) invicom@snu.ac.kr

서울대학교 총장후보초빙위원회 위원장

콩트 릴레이

낯선 도시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법

崔大煥(불문89-94)
소설가·KTV 경제데스크



그곳이 어떤 곳이든, 처음엔 도시의 모든 것들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당신을 거부할 것이다. 사람도, 규칙이나 제도도, 심지어 한낱 길거리의 쓰레기통과 같은 사물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의 말미를 오롯이 그 부분에 할애하고 있듯이, 당신이 발을 디딘 도시에 스며들어 살아가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매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동안 당신을 거부하던 그곳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성격을 달리해, 이제는 당신이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문을 열어줘야 했지만, 그 날은 그렇지 않았다.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기척이 없기에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반 년 동안 내가 출근한 낮 시간에 자신의 짧은 직장 일을 끝낸 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거의 언제나 나보다 먼저 돌아와 있던 그녀였다. 그렇다 보니 그 시간에 그녀의 부재는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저 잠깐 뭐라도 사러 나갔으리니 생각하고 사위를 했다.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의 무지는 오롯이 그녀의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어둠을 유독 무서워해서 작은 등이라도 켜놓아야 잠이 들 수 있다는 것, 이런저런 요리의 조리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만드는 일에는 대단히 서툴다는 것, 환철한 키에 비해 작은 편인 가슴을 드러내기 싫어해 나와 사랑을 나눌 때에도 셔츠 따위의 윗옷은 꼭 걸친다는 것 등 따지고 보면 나는 그녀에 관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를 찾는 일에는 손바닥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항들이었다.

오랜만에 맞닥뜨린 공휴일에 집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다 저녁 무렵 집 근처의 바를 찾아 혼자서 마티니를 훌쩍거리던 날, 그녀는 내 앞에 나타났다. 바 안쪽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 음악 소리에 노곤하게 젖어가던 나는, 어느새 옆에 와 앉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 근처에서 무슨 재미로 술을 먹나 몰라, 약속도 없이.”

“...”

“놀랄 것 없잖아. 당신 못차림과 앓은 자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걸 뭐.”

고, 그녀는 몹시도 피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일할 곳과 머물 곳을 구하기 전까지 괜찮다면 내 아파트에 있어도 좋다고 말해줬다. 열흘쯤 지난 뒤 그녀가 오전에만 일하는 커피 전문점 일자리를 찾았지만 그녀는 내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와 나는 여섯 달 동안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맥주를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

*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오십일 가까운 평일과 이십일 가까운 주말이 지났다. 나는 지금 소파에 혼자 앉아, 무릎 위의 책 한 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건들을 고스란히 트렁크에 넣어 간 듯 했는데, 유독 그 책 한 권만 가져가지 않았다. 원본이 아니라 복사를 통해 제본한 책의 겉장에는 토머스 E. 하위라는 이름과 함께 ‘낯선 도시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How to infiltrate into a strange city and to live there’라는 영어 제목이 함께 쓰여 있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그 책을 발견하고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던 나는 오늘 저녁에도 캔 맥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신이 발을 디딘 도시에 스며들어 살아가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매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동안 당신을 거부하던 그곳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성격을 달리해, 이제는 당신이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쓰인 부분에서 책을 덮은 채로 아까부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다.

책은 제목 그대로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딘 때부터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주는 일종의 지침서였다. 난생 처음 보는 이 책과 저자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싶어진 나는 광활한 인터넷 검색 망을 이 잡듯이 뒤져봤지만, 어쩐 일인지 도무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저 책 뒤 표지 안쪽에 쓰인 대로, ‘토머스 E. 하위는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일생동안 이름을 바꿔가며 전 세계 서른 곳이 넘는 도시에 살았다’는 간략한 작가 설명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책의 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건가. 나와 살았던 잠시 동안의 기간을 뒤로하고, 지금쯤 또 다른 낯선 도시에 도착해 스며들어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사실 내가 책을 덮고 생각에 잠긴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그녀가 사라지기 얼마 전부터 보였던 눈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을 하는 중에, 또는 음식을 먹는 중에 어느새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표정의 변화는 전혀 없이 그저 눈물 두 줄기만 볼을 타고 스르르 흘러내리는 쪽이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나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지만, 혹 시나브로 내가 그녀로 하여금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건 그렇고, 책을 덮은 이유와는 또 다르게, 내가 다시 책을 집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도 불현듯 어느 낯선 도시로 훌쩍 떠나게 될까봐 두려운 걸까. 일생을 낯선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아간 하위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처럼.

“

내가 다시 책을

집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나도 불현듯 어느 낯선 도시로

훌쩍 떠나게 될까봐 두려운 걸까.

일생을 낯선 도시를

옮겨 다니며 살아간 하위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처럼.

”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 - 07) 동문

는 사실이다.
— 토머스 E. 하위, ‘낯선 도시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법’

*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다. 비좁은 틈이라도 이용해 신문을 보면서 지루함을 달래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사람들의 머리 사이로 보이는 차창 밖 어두운 터널 벽만 바라보며 삼십분 남짓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중간에 발을 뺐었다며 화를 내는 여자와 일부터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는 남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사람들은 마치 서로에게 기대어 서서 잠이라도 든 것 마냥 조용하기만 했다. 그리 심하지 않은 허기와 피곤을 느끼면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왔어?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피곤한 일 굴이네.”

냉장고를 열어 어떤 식재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닭 가슴살 스테이크 두 개를 굽고, 그 위에 끼얹어 가며 먹을 카레도 두 사람 분량을 끓였다. 어느 때 같았으면 내가 저녁을 만드는 내내 낮에 들렀던 곳들에 관해 무슨 무용담이라도 되는 듯 옆에 서서 조잘대는 그녀의 목소리로 실내가 가득 찼을 것이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기까지 몇 번인가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던 것을 보면, 그동안 내가 그녀의 조잘거림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나 보다. 식탁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려 봤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고, 혼자서 저녁을 먹은 뒤 밤이 이슬해지도록 초인종을 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의 모습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보이지 않았다.

*

처음엔 그녀를 찾아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실상 나는 J라는 이름 말고는 그녀에

“...”

“트레이닝복 바지에 헐렁한 셔츠 차림이니 집 근처인 게 분명하고,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도 도무지 돌아보질 않으니 약속도 없이 혼자인 거지.”

그제야 피식 웃음을 흘리는 내게 그녀는 따라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J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해서 그녀와 나는 나란히 바에 앉아 마티니를 마시게 됐다. 그녀는 전날 밤에 이 도시에 도착해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종일 돌아다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 바로 들어왔다고 했다. 앉은자리 옆에 다소곳이 세워둔 트렁크에 내 시선이 머무르자, 그녀는 자신을 여행객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이 도시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도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거리가 까만 어둠으로 칠해졌을 즈음 그녀와 나는 내 아파트로 옮겨 맥주를 마셨

동 정

수 상

▲朴炳善(사회교육46-50 재불 서지학자)= 최근 한국전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수여하는 제26회 가톨릭대상 특별상 수상.
▲李鎬王(의학48-54 한탄생명과학재단 이사장)= 지난 12월 8일 예방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한 공로로 제6회 서재필 의학상 수상.

▲金順信(영어교육51-00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2월 17일 제58회 크리스찬 문학신인상(수필부문) 수상.

▲魯仁煥(경제54-58 삼일양행 대표)= 지난 12월 10일 서초V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우수 봉사자에 선정돼 서울 서초구청장 표창장 수상.

▲尹世榮(행정56-61 SBS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민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수상.

▲朴魯禧(치의학68졸 미국 UCLA 치과대학장)= 오는 2월 미국 치의

학교협회 산하 기스재단으로부터 치의학 부문 최고 권위의 기스(Gies)상 수상.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지난 12월 11일 제23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지역부문 대상(경기지역) 수상.

▲廉貞任(독문63-67 수필가)= 지난 12월 9일 수필집 '작은 상자, 큰 상자'로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가 제정한 제25회 펜문학상(수필부문) 수상.

▲蔣舜權(지질과학65-69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명예연구원)= 지난 12월 9일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

국 과학문화상(도서부문) 수상.
▲金鍾燮(사회사업66-70 스펀코 그룹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成耆鶴(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골드윈코리아 회장)= 지난 12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소비재부문) 수상.

▲李熙範(전자공학67-71 STX에너지 회장)= 지난 12월 8일 서울 사대부고동창회로부터 제11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상 수상.

▲柳佑益(지리67-71 주중 대사)=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李水彰(수의학67-71 삼성생명 사장)= 지난 12월 15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ROTCian상 수상.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관악언론인회장·본보 논설위원)= 오는 1월 18일 국내 언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沈之淵(정치68-75 경남대 교수)= 지난 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모교 尹天柱 전임총장을 기려 제정한 제1회 仁齋학술상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스너 회장)= 지난 12월 4일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또 10일 제5회 한국CEO그랑프리(서비스부문) 및 자랑스런 서강MBA상 수상.

▲李基秀(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 지난 12월 1일 대한중재인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崔志成(무역71-77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문 사장)= 지난 12월 4일 한국통신학회로부터 올해의 정보통신대상 수상.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12월 2일 아시아기자협회 총회에서 47년간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공공봉사 분야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공로상 수상.

▲金明煥(수학73-7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교무처장)= 지난 12월 18일 대한수학회 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金學範(한대원78-81 한경대 교수)= 지난 12월 8일 문화유산 보존·관리 등에 기여한 공로로 옥관문화훈장 수훈.

▲韓玉姬(화학79-8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12월 1일 제9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 학 부문) 수상.

▲禹成奉(농공학79-83 시인)= 최근 국제문화예술협회 열린문학상 시상식에서 열린문학신인상 수상.

▲金澤辰(전자공학85-89 엔씨소프트 사장)= 지난 12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이 수여하는 제3회 최우수 기업가상(엔터테인먼트부문) 수상.

▲沈甲輔(AMP 3기 삼익THK 부회장)= 최근 한국상품학회로부터 제9회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혁신부문) 수상.

▲安鎬元(HPM 6기 부전대 교수·수필가·시인)= 지난 12월 29일 한국시연구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박재삼 문학상 대상 수상.

인 사

▲高建(정치56-60 前국무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지난 1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李相培(행정58-62 前서울시장·前국회의원)= 지난 12월 15일 제12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權丙鉉(행정63졸 前주중 대사·한중문화청소년미래센터 대표)= 지난 12월 4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초대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SLM)' 챔피언 겸 녹색대사에 임명.

▲許南周(임학59-65 광릉숲보존 협회장)= 최근 모교 임학동문 등산모임인 '서림산우회' 제2대 회장에 선임.

▲朴興日(영어교육60-64 호서대 초빙교수)= 지난 12월 22일 임기 3년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7대 이사에 선임.

▲金勝雄(외교61-67 前한국일보 파리특파원·前 시사저널 편집국장·국경 없는 세상 이사장)=지난 12월 26일부터 케이블TV 법률방송(Court TV) 대담프로그램 '김승웅의 휴먼터치' 진행.

▲李成俊(고고인류64-69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취임.

▲黃祐呂(법학65-69 국회의원)=최근 팔라우공화국 코르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서 의장에 선출.

▲金仁圭(정치69-73 KBS 사장·본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7일 제17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에 선출.

▲崔榮喜(의학74-80 前단국대 교수·우리건강의학센터 원장)=최근 제11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추계 연수교육 및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金鎮國(정치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22일 임기 1년의 제57대 관훈클럽 총무에 선출.

▲金容植(외교79-83 성신여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金長實(행정79-81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지난 12월 18일 임기 3년의 서울 예술의 전당 사장에 임명.

▲李革燦(사회85-89 중앙일보 경제섹션편집장 차장)=지난 12월 3일 임기 2년의 제44대 한국편집기자협회 회장에 취임.

▲趙昇龍(물리91-95 前삼성전자 선임연구원)=지난 12월 22일 KAIST 공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교수로 부임.

▲尹鍾畢(HPM 16기 前국군간호사관학교장)=지난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사단법인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에 선임.

행 사

▲俞東濬(잠사학56-60 한국단미사료협회장·晶月 羅惠錫기념사업회장)=지난 12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헝가리 대통령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농업과 IT산업의 투자 및 교류에 관해 논의.

▲朴聖泰(의학58-64 前국회의원·예일의원장)=최근 경상남도 의사의 날 종합학술대회에서 '의사, 정치, 문학, 음악과 나'를 주제로 특별강연.

▲鮮于仲皓(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지난 12월 7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의 2009년 세계대학평가 14위(교수 1인당 논문인용지수 부문) 축하연 개최.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12월 1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무궁화홀에서 전임 언론중재위원장을 초청 해 간담회 개최. 또 16일 서울 공릉새터민정착지원센터를 방문해 성금 전달.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지난 12월 2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교회 기념문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나무' 봉정식 개최.

▲李炳勳(의학60-66 서울시의회 고문)=지난 12월 3~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발명특허 전시회와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등 발명특허품 도안시리즈 전시.

▲全玲惠(기약63-67 경희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12월 28일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 본당에서 오르간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바흐 음악연주회'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지난 12월 21일 국민대 세미나실에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관악회 이사)=최근 파인트리클럽 창립 51주년 축하연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 개최.

▲金昶朱(응용미술82-86 경원대 교수)=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International Artist's Book Workshop Vilnius 2009'에서 워크숍 행사 진행.

▲김시내(기약99-03 한세대 강

사·첼리스트)=지난 1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아우름: Expression II-첼로와 대금의 만남' 개최.

▲金容和(기약96-01 피아니스트)=지난 1월 8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라벨, 베토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朴永享(ACAD 43 한국기업경영연구원 대표)=최근 사무실을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B-1318호로 이전.

▲金鎮敦(HPM 4기 문제당환의원장·송파문인협회장)=최근 서울 고덕중·강동고에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강연. 또 12월 16일 한성백일장·시화전시회·송파문학출판기념회·문학나눔콘서트 개최.

이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 ▲趙成植(경성대학46졸 고려대 명예교수)=12월 23일 별세(87세)
- ▲朴泰元(정치46-50 前삼진알미늄 대표)=12월 3일 별세(87세)
- ▲李克燦(정치46-50 연세대 명예교수)=12월 4일 별세(85세)
- ▲琴東信(법학53-57 前단국대 부총장)=12월 14일 별세(75세)
- ▲權德周(중문54-58 숙명여대 명예교수)=12월 24일 별세(75세)
- ▲郭一薰(행정60-65 국제PTP 아태 의장)=12월 27일 별세(68세)
- ▲盧螢民(기계설계73-77 前KIST 연구소장)=12월 3일 별세(55세)
- ▲金大炳(제약74-78 前대전신약정장)=12월 10일 별세(54세)
- ▲李殷宗(신문81-85 SBS 특임부장)=12월 8일 별세(46세)
- ▲元喆勇(경제92-99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12월 17일 별세(37세)
- ▲徐錫宰(ACAD 18기 前국회의원)=12월 26일 별세(74세)
- ▲李世勳(ACAD 26기 세하종합건축 대표)=12월 4일 별세(69세)
- ▲朴仁培(AMP 30기 前해태제과 사장)=12월 9일 별세(68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02)886-2219 • 팩스: 02)886-2218

신 간

■ 종이로 만든 女子

－張潤宇 지음



한국 종이 접기협회장, 한국종이문화원장 등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張潤宇(응용미술56-62) 명예교수의 열세 번째 시집.

자화상, 감나무, 山行抄, 겨울 광덕산, 찢어진 역사의 상처, 長醉, 버티고개, 添附인간 등 이 책에 담긴 60여 편의 시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

張동문은 동양적 정서와 조형, 전쟁과 일상, 허무와 가족, 산과 풀잎, 술과 여행 등을 시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대중과 접근하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훈刊·값10,000원〉

■ 조선시대 農本主義思想과 經濟改革論

－吳浩成 지음



성균관대 경제학부 吳浩成(농경제58-64) 명예교수가 조선시대의 각종 경제·사회정책의 뿌리는

농본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농본주의 사상은 조선조 5백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온 국정운영의 기본틀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

학자로 불리는 柳馨遠, 李 瀾, 朴趾源, 丁若鏞의 개혁사상을 근대화를 지향하는 국민경제사상의 효시로 보는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유학적 이상세계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농본주의 관점에서 조선사회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인문화사刊·값25,000원〉

■ 푸른하늘 아래

환경보건과 건강

－姜寅求 지음



보건대학원동창회장을 역임한 姜寅求(수의학59-64 대영EEC 회장) 동문이 환경보건 관련 자료를 모아 ‘푸른하늘 아래 환경보건과 건강’을 출간했다.

姜동문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 공업단지와 폐광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통해 공해병 예방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아·산모·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교육이 필요하고, 정부의 좋은 환경정책의 시행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다. 〈하늘刊·값12,000원〉

■ 현대 사회과학 명저의 재발견1

－金世均 엮음

모교 사회과학연구원 金世均(정치66-70)원장이 2008년에 개최한 집담회에서 모교 李天杓·金尙均·金光億·崔丁云·柳根培·徐二鍾·柳弘林·金淸澤·李澈羲교수가



고,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나 학생들에게는 거의 소개되지 않던 현대의 주요 사회과학 저서들이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2,000원〉

■ 프로이트의 의자

－鄭道彦 지음



모교 의대정신과학교실 鄭道彦(의학70-76)교수가 ‘프로이트의 의자’ 숨겨진 나와 마주하는 정신

분석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처음으로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증한 프로이트 정신분석가인 鄭교수가 이드와 자아, 의식과 무의식, 욕망과 방어기제 등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놓은 에세이와 같은 책이다. 〈웅진지식하우스刊·값13,000원〉

■ 그리움이라는 병

－沈潤南 지음

시 창작과 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沈潤南(철학82-94)동문이 1백편의 작품을 모아 첫 시집을 펴냈다.

沈동문은 재학시절 학내 민주화운동, 전국대학총학생회 부활투쟁, 국군보안사령부 고문 조작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단행본으로 묶었다.

이 책의 명저들은 강의에서는 가장 많이 소개되

공 연

■ 김정은 바이올린독주회

－1월 24일 예술의 전당



독일 쾰른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김정은(기악00-04)동문(사진)

이 1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모차르트, 야나체크, 바르토크,

악스만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 申敏定 피아노독주회

－1월 26일 예술의 전당



백석예술대 申敏定(기악85-89)교수(사진)가 1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

당 리사이틀홀에서 가데, 그리그, 닐센, 시벨리우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사건 폭로 등 인권 관련 조사활동을 하다가 투옥돼 고문을 받았다. 그 후 유증으로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했으며,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沈동문의 시집에는 인생 역정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작품이 서정적인 동시에 아름답고, 따뜻한 동시에 담박한 것은 아주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철학과현실사刊·값8,000원〉

■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朴寅星 지음

중국 항저우 浙江大 토지관리학과 朴寅星(환대원83-85)교수



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도시발전과 그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및 발전축 형성 동향을 고찰·정리했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정책 결정, 발표를 전후한 시기의 동향과 그후 30년간 진행된 개혁개발 과정에서의 도시화 배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총 4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도시발전사 및 도시연구 동향 ▲중국의 개혁개방과 도시화 ▲선전, 상하이, 베이징의 발전 동향과 도시계획 ▲도시군과 발전축 등을 자세히 담았다. 〈한울아카데미刊·값26,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故박관호(화학교육51줄)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전자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자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허남각(경제학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손경식(법학57-61)
- △이중기(경영학69-73)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장용택(약학55-61)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묵(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줄)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변주선(영어교육60-64)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줄)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형원(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윤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경일(약학64-68)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운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2백만원
-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종서(경제학58-63)
- △김종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윤(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종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줄)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줄)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호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부열(경영학74-78)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고원호(기계공학48줄)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심형운(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줄)
- △이정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정정영 (불어불문62-66)
△최정길 (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 (조경학76-83)
△한규택 (원자핵공73-77)
△치불희
◆1천2백만원
△강웅선 (치의학78-84)
△심영보 (의학55-61)
△인동일 (법학59-63)
△오상호 (전기공학48-55)
△이내원 (화학교육58-62)
△이재철 (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 (자원공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 (의학50줄)
◆1천1백10만원
△이홍중 (역사교육54-58)
◆1천1백만원
△김상복 (종교학57-63)
△김상수 (자원공학73-77)
·김태훈 (건축학02-07)
△정해남 (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 (의학54-60)
△조내규 (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 (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 (약학55-59)
◆1천30만원
△박만호 (행정학57-62)
△심이택 (화학공학57-63)
△이영필 (항공공학66-71)
△이형하 (법학74-78)
△지현택 (치의학43-47)
△허성길 (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 (사회교육51-55)
△강용현 (법학71-78)
△강행언 (토목공학61-65)
△고광우 (행정학53-58)
△권동은 (FIP 4기)
△권혁웅 (불어불문59-63)
△금진호 (법학50-58)
△김 철 (기계공학64-68)

△김기춘 (법학58-62)
△김두만 (상학59-63)
△김미령 (약학74줄)
△김백준 (수학62-66)
△김병린 (토목공학55-59)
△김상호 (법학72-76)
△김선양 (중어중문84-88)
△김연호 (화학공학71-75)
△김영갑 (법학74-78)
△김영석 (경제학60-66)
△김영재 (공업화학77-81)
△김원배 (동물학55-60)
△김윤중 (약학64-71)
△김은식 (국사학73-80)
·윤영옥 (생물교육72-76)
△김일섭 (경영학64-69)
△김재범 (산업공학74-78)
△김재호 (생물교육53-57)
△김주환 (토목공학57-61)
△김진규 (기계공학61-66)
△김찬욱 (기계공학55-59)
△김철수 (법학52-56)
△김평우 (법학63-67)
△노병수 (공법학83-87)
△류태환 (상학48-54)
△문규철 (응용화학69-73)
△문대원 (경영학71-75)
△문명국 (기계공학73-75)
△문성훈 (식품공학86-92)
△박덕철 (기계공학57-61)
△박명학 (영어교육61-65)
△박영준 (상학60-66)
△박중국 (농화학57-63)
△박준우 (의학75-81)
△박진희 (무역학76-80)
△박창우 (경제학80-84)
△배명인 (법학52-56)
△백사익 (채광학40-42)
△변상현 (의학51-57)

△서계숙 (기약56-60)
△석학진 (상학58-64)
△설동섭 (축산학53-57)
△신방호 (경제학67-71)
△신윤식 (사학55-59)
△안경상 (행정학57줄)
·김정애 (가정교육54-58)
△양배덕 (전기공학57-61)
△양성철 (정치학58-64)
△염기영 (사회학70-74)
△오병제 (AMP 21기)
△오용섭 (임학60-66)
△유흥수 (법학58-65)
△유희춘 (상학49-55)
△윤영석 (경제학58-64)
△윤희진 (축산학63-67)
△이강수 (상학51-55)
△이경호 (행정학61-65)
△이계우 (행정학58-63)
△이동철 (토목공학78-82)
△이병재 (경대원69줄)
△이병형 (화학67-71)
△이상현 (정치학64-68)
△이석운 (영어영문50줄)
△이송은 (상학53-57)
△이인기 (지질과학62-66)
△이재후 (법학58-62)
△이전구 (임학60-64)
△이종웅 (기계공학65-69)
△이진규 (치의학78-84)
△이창기 (약학55-59)
△이창원 (법학55-60)
△장무환 (경제학45-51)
△장세권 (농공학70-76)
△장익용 (기계공학54-58)
△장자준 (의학70-77)
△장휴동 (농경제학59-63)
△조길웅 (HPM 14기)
△조정훈 (자원공학75-81)

△최남해 (상학52-56)
△최선집 (사회교육75-79)
△최승철 (기계공학66-70)
△최준기 (조선항공57-61)
△추재옥 (의학63줄)
△표상기 (원자력공61-65)
△하영기 (정치학44-48)
△한창섭 (정치학57-62)
△故함인영 (기계공학48줄)
△함정호 (행정학53-57)
△허 선 (정치학64-68)
△홍순자 (독어교육61-65)
△황경로 (AMP 11기)
△황남주 (물리학87-92)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9백만원
△김현산 (법학54-58)
◆7백만원
△정경모 (행대원65-67)
◆6백만원
△오창석 (전기공학46-50)
△이재식 (교육학75-79)
◆5백만원
△김영수 (법학60-64)
·원종순 (국어국문64-68)
△박수복 (농생물학56-61)
△서립규 (토목공학57-61)
△송진해 (공업교육63-72)
△신박일 (약학60-64)
△윤성근 (공업교육74-78)
△윤순녕 (간호학69-73)
△윤익석 (축산학49-53)
△이윤경 (간호학65-69)
△이현구 (AMP 52기)
△정주석 (법학61-65)
△조상근 (행정학69-73)
△조원환 (AMPP 6기)
△법대37회 동기회

△오사카지부동창회
△AMPFRI동창회
△FIP동창회 (김명도)
◆4백30만원
△강충원 (전기공학59-65)
◆3백90만원
△이정식 (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 (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 (화학57줄)
△이종복 (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인효석 (농공학80-87)
△최병호 (화학교육57-61)
△한규범 (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 (농경제학69-76)
△권숙일 (물리학54-58)
△권학창 (지구과학69-76)
△김인규 (정치학69-73)
△김재율 (경성법전39줄)
△김형기 (불어교육72-76)
△박금식 (화학54-58)
△안재동 (상학60-67)
△이동수 (건축학61-66)
△이성기 (행대원63-65)
△임채주 (경제학55-59)
△정영채 (수의학56-60)
△하재규 (농학53-57)
△황선용 (사회교육57-61)
◆2백50만원
△홍수명 (축산학68-72)
◆2백30만원
△신성우 (AMP 32기)
△이준형 (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 (생물교육70-74)
△나정우 (농공학72-77)

△문창극 (정치학68-72)
△박태원 (정치학46-50)
△성기학 (무역학66-70)
△오복동 (법학57-63)
△유지열 (외교학84-88)
△윤정일 (교육학62-66)
△이경렬 (응용미술69-73)
△이기수 (대학원70-72)
△이원태 (농경제학64-68)
△이종순 (법학57-61)
△이흥구 (법학53입)
△이희호 (교육학46-50)
△임규운 (행정학53-57)
△정낙찬 (서양사학9-73)
△정용인 (법학60-64)
△최창식 (의학54-60)
△한영국 (경제학50-54)
△허영호 (전자공학71-75)
△홍석준 (사회학73-77)
△황선태 (법학66-70)
△황의인 (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 (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 (금속공학57-62)
◆1백50만원
△곽 승 (화학공학59-63)
△김건호 (수의학70-74)
△윤옥영 (수학58-61)
△이기남 (수학67-71)
△이진호 (화학공학85-89)
△정성진 (법학58-63)
△조기장 (사법학86-90)
·김주영 (지리학92-97)
△조현래 (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 (법학57-59)
△김종철 (치의학71-77)
△김진익 (법학55-60)
△문일환 (치의학65-71)
△양동관 (법학67-71)
△이용우 (공업교육64-68)
△이태형 (상학59-63)
△임한조 (물리학67-71)
△정휘위 (법학62-66)
△조병철 (섬유공학59-65)
△최동식 (법학76-80)

△최명재 (상학48입)
△추호석 (경영학69-73)
△현천욱 (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 (농업교육63-67)
◆1백23만원
△홍정식 (사회교육52-56)
◆1백21만원
△박정식 (약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 (치의학57-61)
△김영도 (축산학68-75)
△김주현 (의학65-71)
△김진원 (건축학68-72)
△나명훈 (의학76-83)
△부장렬 (건축학77-81)
△송창기 (중어중문57-62)
△이갑노 (의학65-71)
△이계홍 (농공학56-62)
△이상건 (섬유공학74-78)
△이정우 (AMPFRI 17기)
△이창건 (전기공학49-54)
△조용국 (사회학66-70)
△차왈보 (의학53-59)
◆1백15만원
△이원영 (ACAD 11기)
◆1백14만원
△납기호 (상학56-62)
◆1백13만원
△홍성욱 (GLP 3기)
◆1백10만원
△김 현 (법학76-80)
△김금림 (약학62-66)
△김기섭 (정치학69-73)
△김기영 (ACAD 49기)
△김도현 (대학원74-76)
△김동만 (GLP 15기)
△김선복 (건축학62-66)
△김지호 (화학공학55-59)
△명동근 (경제학45-52)
△민미란 (국악73-77)
△박영원 (지리학74졸)
△박창순 (기계공학64-68)
△백 철 (상학56-61)
△백낙운 (독어독문56-60)
△변재용 (토목공학75-81)
△송경희 (국악59-63)

△신동승 (법학79-83)
△원우현 (행정학61-65)
△유종일 (신대원72-74)
△유해덕 (법학53-57)
△이경보 (토목공학46-50)
△이근남 (불어불문68-72)
△이두현 (행대원74졸)
△이명훈 (농경제학69-73)
△이정자 (국어국문50졸)
△이종팔 (경영학76-80)
△전계복 (금속공학56-61)
△전영철 (미학53입)
△조준래 (AMPFRI 12기)
△지근진 (농공학58-64)
△최연균 (중어중문67-71)
△허신행 (농경제학62-66)
△홍성완 (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 (의학80-87)
〈이상 2005년 10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1백만원
△강구선 (광산학63-67)
△강규석 (물리교육58-62)
△강덕수 (GLP 8기)
△강성수 (섬유공학57-61)
△강성현 (치의학69-75)
△강영복 (상학51-55)
△강원일 (행정학59-63)
△강정일 (농경제학64-68)
△강종표 (외교학76-83)
△강홍섭 (화학공학59-63)
△고 건 (정치학56-60)
△고병우 (경제학52-56)
△고의식 (수리학56-60)
△고재선 (섬유공학52졸)
△고호곤 (AMP 58기)
△구재철 (의학78-84)
△권광중 (법학61-65)
△권순철 (전자공학83-85)
△권이혁 (의학41-47)
△김경동 (사회학55-59)
△김교성 (전기공학51-55)
△김국일 (토목공학63-68)

△김규복 (법학69-73)
△김규형 (약학53-57)
△김기수 (행정학47-51)
△김노수 (섬유공학45-52)
△김달식 (법학53-57)
△김덕영 (토목공학45-47)
△김덕원 (수리학50-54)
△김덕중 (외교학71-75)
△김도언 (행정학58-63)
△김동찬 (생물교육51-55)
△김명자 (화학62-66)
△김방연 (상학52-56)
△김상원 (농경제학52-56)
△김석건 (농경제학50-55)
△김석기 (행정학64-68)
△김석준 (기계공학72-76)
△김승권 (기계공학68-72)
△김연호 (영어교육67-75)
△김영기 (법학54-58)
△김영배 (농공학78-85)
△김영수 (경제학58-62)
△김영일 (법학60-64)
△김영재 (법학57-62)
△김용식 (건축학70-74)
△김용운 (치의학62-68)
△김용찬 (농화학57-61)
△김우동 (계산통계72-79)
△김유경 (SPARC 2기)
△김윤재 (상학54-58)
△김익모 (AIP 23기)
△김인중 (법학56-60)
△김일환 (천문기상64-72)
△김재락 (법학78-82)
△김정일 (금속공학58-64)
△김중국 (농화학63-70)
△김종욱 (경제학58-62)
△김주용 (전기공학58-63)
△김준말 (영어교육55-59)
△김중기 (경제학54-58)
△김진세 (법학61-69)
△김진우 (약학54-58)
△김진호 (법학57-61)
△김창국 (법학56-60)
△김창순 (경성여사범43입)
△김철빈 (토목공학67-71)
△김철현 (제약학71-75)
△김태홍 (화학교육71-79)

△김풍오 (원자력공68-72)
△김학균 (약학51-55)
△김학원 (법학66-70)
△김현재 (법학56-61)
△김형욱 (AIP 37기)
△김형진 (기계공학51-55)
△김혜성 (식품영양70-74)
△김호룡 (법학48-52)
△김홍종 (수학74-78)
△김화중 (간호학63-67)
△김환수 (법학52-56)
△김효종 (법학61-65)
△김후란 (가정교육53입)
△나도선 (약학67-71)
△나종택 (기계공학53-57)
△노승행 (법학58-63)
△노정의 (섬유공학46-50)
△류종묵 (상학59-65)
△류철호 (토목공학67-71)
△마인경 (지리교육56-60)
△문광순 (광산학60-64)
△박국양 (의학75-81)
△박석흥 (불어불문63-67)
△박성숙 (의학65-71)
△박성철 (법학75-79)
△박순억 (치의학66-72)
△박순호 (AMP 43기)
△박승균 (조선항공63-67)
△박승용 (영어교육76-80)
△박양수 (영어교육55-59)
△박영숙 (CHCN 3기)
△박영철 (AMP 40기)
△박인원 (의학76-83)
△박재형 (의학66-72)
△박종찬 (공업교육71-76)
△박종철 (물리학61-66)
△박준서 (법학58-64)
△박해룡 (상학58-63)
△박향숙 (응용미술58-62)
△박홍일 (영어교육60-64)
△배기선 (AIP 25기)
△배상경 (경제학56-61)
△배승환 (기계공학58졸)
△배영한 (상학49-58)
△배인준 (철학70-74)
△백형배 (화학공학47-53)
△변영삼 (금속공학77-81)

△변영진 (토목공학67-71)
△변종문 (공업교육72-76)
△서광벽 (재료공학73-77)
△석준형 (물리학67-71)
△설흥기 (대학원07-09)
△설희순 (기계공학62-66)
△손두식 (임학57-63)
△손완주 (화학공학55-59)
△손환규 (농업교육64-68)
△송병락 (경제학59-63)
△송사일 (농공학80-84)
△송언기 (AMP 28기)
△송인상 (경성고상35졸)
△송종환 (외교학64-68)
△송호룡 (AIC 19기)
△신명중 (법학80졸)
△신수정 (기약59-63)
△신용삼 (경영학73-77)
△신원식 (행정학57-61)
△신정균 (농경제학54-58)
△신필재 (약학55-59)
△신혜순 (가정교육47-51)
△신희명 (물리교육49-54)
△신희섭 (의학68-74)
△심장수 (법학70-74)
△심재갑 (행정학52-56)
△심한배 (공업화학71-76)
△안산돈 (행정학59-63)
△故안재환 (공예92-04)
△안치득 (전자공학76-80)
△안휘준 (고고인류61-67)
△양해준 (식품공학82-86)
△양호석 (농화학57-63)
△염영섭 (화학66-70)
△염준호 (기계항공95-99)
△여운관 (금속공학53-57)
△오경화 (의류학81-85)
△오세종 (경제학61-65)
△오윤덕 (행정학61-65)
△오인석 (전자공학57-62)
△오진환 (법학75-79)
△오태환 (법학53-57)
△우병규 (정치학51-55)
△우세홍 (생물교육60-65)
△우완식 (경제학57-61)
△우종호 (중어중문60-64)
△우효섭 (토목공학72-76)

△유가영 (기약86-90)
△유위종 (농경제학72-80)
△유제운 (조선항공51졸)
△유진무 (상학62-66)
△유필상 (전기공학66-73)
△윤근환 (농학50-54)
△윤용철 (경영학83-88)
△윤용혁 (독어교육60-64)
△윤원진 (HPM 6기)
△윤재석 (화학교육71-75)
△윤정철 (의학59-65)
△윤정혜 (화학교육59-63)
△윤충섭 (농공학55-61)
△이동녕 (금속공학57-61)
△이신자 (응용미술50-55)
△이장무 (기계공학63-67)
△주남철 (대학원69-77)
△최효열 (기약69-73)
◆70만원
△정필현 (의학82졸)
◆58만원
△김상조 (약학54-58)
△이시정 (생물교육54-58)
◆50만원
△손계욱 (금속공학70-74)
△송대원 (사법학87-92)
△유형식 (치의학59-65)
△이순원 (가정교육54-58)
◆35만원
△김정구 (의학70-76)
◆20만원
△김영준 (약학59-65)
◆10만원
△공석영 (교대원64-66)
△김경준 (독어독문56-62)
△김선용 (무역학68-72)
△나도승 (지리교육47-52)
△안종만 (교육학53-57)
△윤남진 (건축학53-57)
〈이상 2009년 10월 24일
부터 12월 28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지면관계로 회비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
다〉